

성도의 빛 2

1989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성도의 벗

1989년 2월호

“교회 잡지인 성도의 벗은 엔사인, 뉴 이라 및 프렌드의 기사를 다룬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공식적인 한국어판 출판물임

대관장단: 에즈라 테프트 벤슨, 고든 비 힝클리, 토마스 에스 몬슨
십이사도 평의회: 하워드 더블류 헌터, 보이드 케이 패커, 마빈 제이 애쉬튼, 엘 톰 페리, 데이비드 비 헤이트, 제임스 이 파우스트, 닐 에이 맥스웰, 러셀 엠 넬슨, 델런 에이치 옥스, 엠 러셀 벨라드, 조셉 비 워스런
고문: 휴 더블류 피녹크, 진 알 쿡, 윌리엄 알 브래드포드, 키드 더블류 윌콕스

통 권: 제272권, 제27권, 제2호
등록: 1967년 10월 5일, 라-3166
발행일: 1989년 2월 1일(월간지)
발행인: 한 인 상
편집인: 정 기 만
발행소: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서울시 종로구 청운동 7번지
광화문 우체국 사서함 616호
우체국 온라인 010041-0024704-11
인쇄인: 영인쇄주식회사 이 세 용
International Magazine PBMA8902KO
PRINTED IN KOREA 2/89
© 1989년 재단법인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판권 소유

The *Songdo-ui Pot* is published monthly by the Corporation of the President of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Application to mail at second class postage rates is pending at Salt Lake City, Utah. Subscription price \$9.00 a year. \$1.00 per single copy. Thirty days' notice required for change of address. When ordering a change, include address label from a recent issue; changes cannot be made unless both the old address and the new are included. Send subscriptions and queries to Church Magazines, 50 East North Temple Street, Salt Lake City, Utah 84150, United States of America. Subscription information telephone number 801-531-2947.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s to *Songdo-ui Pot* at 50 East North Temple Street, Salt Lake City, Utah 84150, United States of America.

성도의 벗 1년 구독료는 4,000원입니다. 권당 400원이며, 성도의 벗 해외 구독일 경우에는 우송료를 독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주소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즉시 소속 와드/지부와 카드 번호를 표시하여 한국 출판부(☎ 738-6832, 청운동)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차

대관장단 메시지 :

- 2 주님의 발자취 따라.....에즈라 테프트 벤슨 대관장
- 8 김 호 직.....데니 로이
- 16 우리가 함께 나누는 사랑.....캐드린 하드캐슬
- 19 나는 안돼요, 나는 담배도 피고 술도 마십니다.....조안 애트킨슨
- 21 당신을 체포합니다.....윌터 엠 혼
- 23 내 반의 모든 어린이를 가르침.....덕시 캐스퍼 벨슨

물론 메시지 :

- 26 다시는 없으리라.....엘레인 본

방문 교육 메시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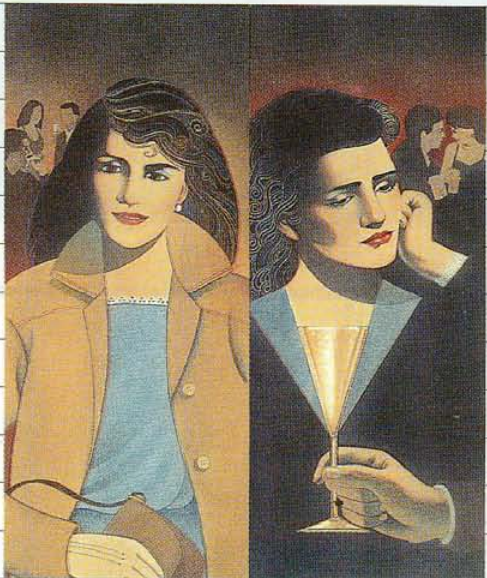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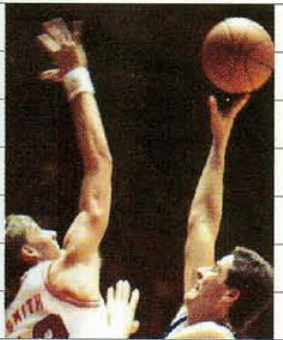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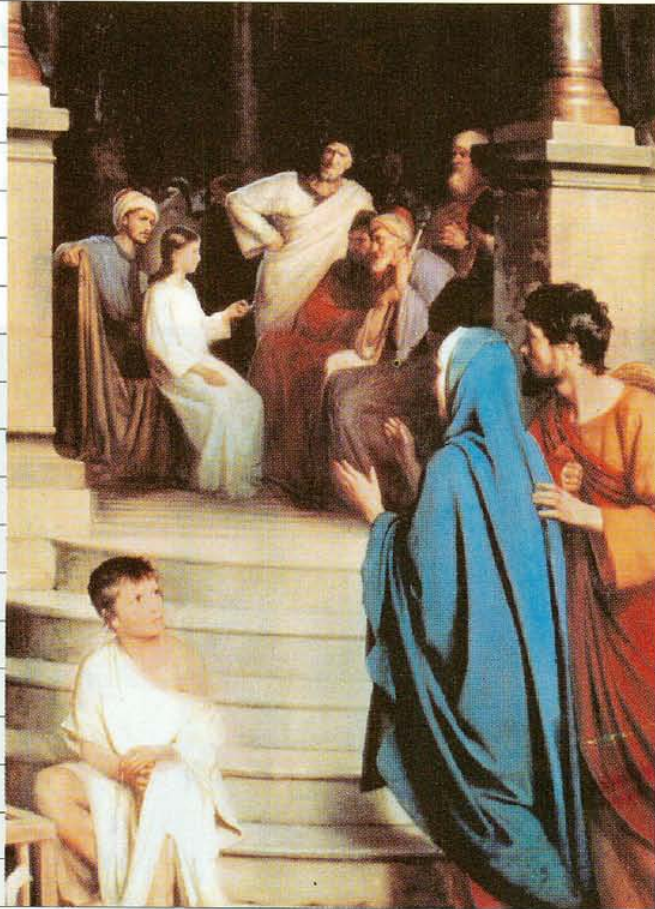
- 27 예수께 나아오라
- 29 지식의 은사.....에프 버튼 하워드 장로
- 37 그들의 질문에 대답할 수 없었을 때.....크리스티 윌리엄즈
- 40 머리속 가득히 들어 있는 성구
성구를 암기하는 재미있는 방법
- 41 결심한 것을 지키기로 결정함.....캐롤린 드브리스
- 45 선교사 부름에 따르는 어려움.....제넷 토마스스와 리자 에이 존슨

어린이란

- 2 경전 이야기
- 교리와 성약
- 4 신앙의 반석.....팻 그래함
- 6 영웅과 여걸들
조지 큐 캐넌.....제인 맥브라이드 초오트
- 8 심심풀이

교회 및 지역 소식





대관장단 메시지

주님의 발자취 따라

에즈라 테프트 벤슨 대관장

“우리의 지도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으로써
정신적, 신체적, 영적 및 사회적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Robert T. Barrett

지난 모든 시대의 예언자들은 우리 시대를 오랫동안 내다 보았습니다. 세상을 떠난 수십 억의 사람들과 앞으로 태어날 사람들도 우리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짧은 기간내에 우리 시대보다 충실한 자가 더욱 기대된 적이 없었습니다. 이 지상에서 악의 세력과 선의 세력이 이처럼 치밀하게 조직된 적은 없었습니다. 오늘날은 악마가 크게 힘을 발하는 날입니다. 그러나 또한 오늘날은 지상에 있는 가장 많은 신권 소유자들로 주님의 권세가 큰 영향을 미치는 날이기도 합니다.

매일 악의 세력과 선의 세력은 새로운 추종자들을 얻습니다. 매일 우리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지지하는 명분을 보여 주는 수많은 결정을 내립니다. 최후의 결과는 분명합니다. 즉 의의 세력이 승리할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남아서 눈에 보이는 것은 우리 각자가 현재와 미래에 이 전투에서 어디에 설 것이며, 얼마나 단호하게 우리가 서 있을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일에 참되며 우리의 예임받은 사명을 완수할 것입니까?

큰 전쟁은 위대한 영웅 호걸들을 만들어 냅니다. 우리는 오늘날 그리고 곧 닥칠 미래에 당면하는 싸움에서 보다 더 중요한 명분을 갖고 용감하게 설 더 좋은 기회란 결코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당면할 가장 큰 싸움은 우리 자신의 영혼의 소리없는 방 안에서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자기 자신의 싸움터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대항하여 적이 사용할 침략은 때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그는 우리의 약점을 이용하려 들 것이므로, 분명한 방법과 마찬가지로 인식하기 어려운 죄와 교활한 타협과 같은 악마의 갖가지 계획에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악마는 그 자신과 같이 모든 사람을 비참하게 하려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주께서 누리는 충만한 기쁨을 우리를 위해서도 추구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섬길 자를 택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지상에 사셨으며, 온갖 유혹을 받게 되셨으나, 모든 싸움에서 이기셨습니다. 그는 이 지상을 걸어 본 전사들 중 가장 큰 성공을 거두신 분이며, 사적이든 공적이든 모든 싸움에서 우리가 이기도록 도와 주시고자 합니다. 우리가 잠시 타락할 때 주님의 속죄는 우리의 회개를 조건으로 하여 우리를 보상해 줄 것입니다.

주님은 주님의 왕국이 승리하리라는 것을 아시며, 주님은 우리가 함께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는 적이 우리와 왕국을 대항하여 사용할 모든 전략을 미리 알고 계십니다. 그는 우리의 약점과 장점을 알고 계십니다. 개인적인 계시에 의해서, 우리는 축복사의 축복을 세심하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연구함으로써 우리의 장점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중에 우리 생활을 수정할 수 있도록 우리의 약점을 나타내 주시기를

간구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만일 사람이 내 앞에 이를진대 내가 저들의 연약함을 보이리라. …저들이 내 앞에 겸손하여 나를 믿는 신앙을 가질진대 내가 연약한 것들을 강하게 되게 하리이다.”(이더서 12:27)

하나님은 우리의 재능과 장점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 주시어 우리가 무엇을 이룰 수 있는지 알게 해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의로운 노력에서 확신을 갖고, 우리는 바울이 한 대로 말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빌립보서 4:13) 바울이 더욱 깊이 있게 말씀한 대로,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시험당함이 없을 것이나, 시험당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내어 주심을 확신합니다. (고린도전서 10:13 참조)

주님은 니파이인들에게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느냐?” 그런 다음 그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거니와 나와 같은 자라야 하느니라.”(니파이삼서 27:27) 예수님이 삼년간의 공적인 성역을 위해서 몸소 준비하셨던 삼십 년 동안 그는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신약에서 누가복음을 펴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누가복음 2:52)

현대 계시에서 우리는 예수께서 이리하심을 압니다. “처음에는 그가 충만함을 받지 아니하셨으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가시더니, 마침내 충만함을 받으시더라.”(교서 93:13)

우리 역시, 은혜에 은혜를 더 하여 지혜와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의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께서 개인적으로 준비하신 네 가지 영역을 살펴보기로 합시다. 우리가 그의 발자취를 따르려 한다면, 우리 역시 주께서 발전하신 이러한 네 가지 분야에서 발전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지혜가 자랐음

지혜는 참된 지식을 합당하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모든 지식이 같은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이 아니며... 모든 지식이 똑같은 가치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터를 이루는 진리가 우리가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진리입니다. 인간이 어디로 왔는지, 왜 이곳에 있으며, 다음 세상에서 어디로 갈 곳을 기대할 수 있는지 알지 못한다면 참으로 배운 것이 아닙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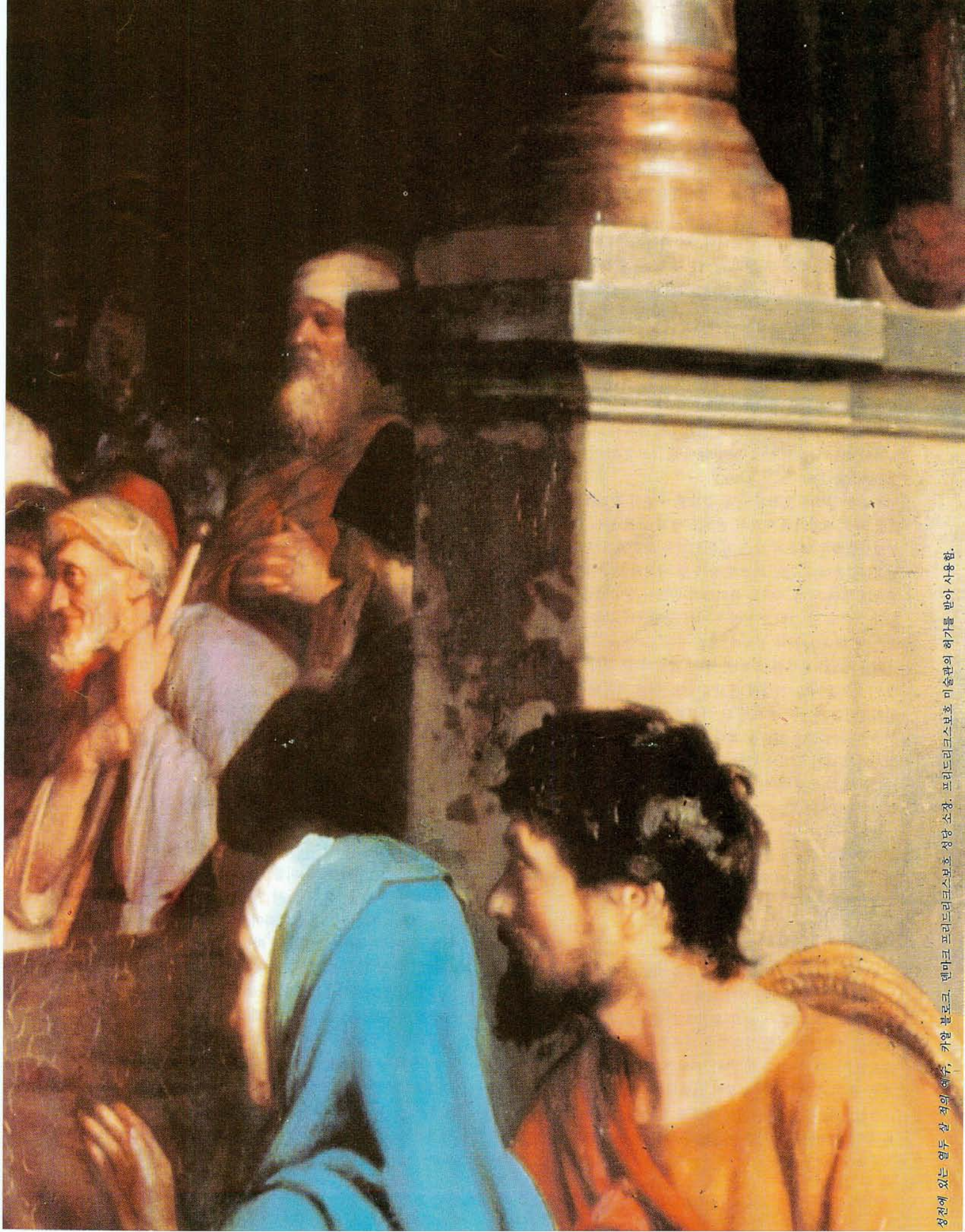
예수께서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하고 제기하신 질문에 합당하게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은 우리에게 이러한 것을 가르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하는 가장 필수적인 지식은 복음과 그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의 지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큰 은사이며 우리가 모두 노력해야 하는 생, 곧 영생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 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족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누가복음 2:40, 52)





성전에 있는 열두 살 적의 예수, 카알 블로크, 덴마크 프리드리크스보호 성당 소장. 프리드리크스보호 미술관의 허가를 받아 사용함.

아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구세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요한복음 17:3)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연구하고 그들의 뜻을 행하지 않는다면 그들을 알 수 없습니다. 이 과정은 우리가 순종한다면, 우리를 결국은 더욱 큰 진리로 인도할 많은 계시된 진리로 인도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형태를 따른다면, 더욱 큰 빛과 기쁨을 받게 될 것이며, 결국은 하나님의 면전으로 나아가,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충만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가장 좋은 책에서 지혜의 말씀을 구하라”(교성 88:118)는 권고를 받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러한 책에는 먼저 경전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예언자, 선견자, 계시자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의 대관장에 관해서, “저의 말을 내 입에서 직접 나오는 말로 받아 들이라.”(교성 21:5)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은 신학에 포함된 더욱 중요한 구원의 진리를 포함하지만, 또한 다른 지엽적인 학문의 진리도 담고 있습니다. 주님은 초기의 선교사들에게 다음과 같은 지식을 더욱 완전하게 가르침받도록 권고하셨습니다. “또 하늘과 땅과 땅 아래의 일과 과거의 일과 현재의 일과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반드시 일어날 일과 국내의 일과 외국의 일 그리고 전쟁과 여러 국민간의 갈등, 지상에 임할 심판 및 여러 나라와 왕국에 대한 지식”(교성 88:79)

읽을거리가 풍부한 오늘날, 읽지 않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아는 것은 참으로 배운 사람의 표시입니다. 어떤 책이나 출판물이 인기 있다는 사실이 반드시 그 가치를 만들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저자가 좋은 작품을 하나 썼다고 해서 필연적으로 그의 모든 저서가 우리가 읽기에 합당한 것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많은 소설과 현대의 출판물은 타락한 도덕과 왜곡된 진리를 그려내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직업 기술을 익히는 것, 우리 손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가치가 있음을 인식합니다. 가장 필수적이며 현실적인 기술 또는 지식은 우리 자신과 가족에게 의, 식, 주를 제공하기 위해 우리의 손과 마음을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키가 자랐음

육신의 건강이 영에 영향을 미침은 의문의 여지가 없는 것이며, 그렇지 않다면, 주님은 결코 지혜의 말씀을 계시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에도 영향을 미치며 영에도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세속적인 계명은 결코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건강에, 신체적으로 성장하는 데 도움을 주는 네 가지 기본적인 부문이 있습니다.

첫째, 의로움입니다. 죄는 약하게 합니다. 그것은 영만이 아니라, 육신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경전에는 의로움에 따른

신체적인 힘을 보여 주는 예로 가득 차 있습니다. 반면에,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정신적 및 육체적으로 병들 수 있습니다.

불순종과 직접 관련된 결과로 질병, 열 및 갑작스런 죽음이 닥치기도 합니다. 예수께서는 병에 걸린 사람을 고쳐 주시고 그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마라.”(요한복음 5:14)

둘째, 음식입니다. 넓은 의미에서, 우리는 우리가 먹는 대로 신체가 형성됩니다. 우리는 대체로, 차, 커피, 담배 또는 술을 금하라는 지혜의 말씀의 몇 가지 금지 사항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밖에도 강조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야채, 과일, 곡류를 섭취할 필요가 있는 것과 같은 긍정적인 면입니다. 우리 세대의 사람들은 더욱 건강한 면에서 음식을 섭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운동입니다. 육신은 운동에서 나오는 재생의 효과를 필요로 합니다. 신선한 공기 속을 걷는 것은 원기를 돋우고 새롭게 해줍니다. 적당히 지도를 받으면, 달리기는 몇 가지 유익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단순한 스포츠 활동 역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째, 수면입니다. 적당하게 일찍 쉬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고해 주십니다. “필요 이상의 잠자기를 그치라. 네 침상에 일찍 들어가 피로를 풀고 일찍 일어나 너희 육체와 정신을 활기있게 하라.”(교성 88:124)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것은 여전히 훌륭한 권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에게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무엇이 우리를 하나님에게 사랑스럽게 해 주는가? 이 생의 목적의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이면 “무엇이든 지 다 행하는지 아니하는지”(아브라함서 3:25)를 보고자 시험받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우리는 주님의 뜻을 알고 행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본보기를 따르고 그와 같이 되어야 합니다.

인생에 관한 필수적인 질문을 바울이 제기한 것과 같아야 합니다.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사도행전 9:6)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뜻은 세 가지 근거에서 알 수 있습니다.

1. 경전...특히 몰몬경에 대하여, 예언자 요셉은 “인간은 다른 어떤 책보다도 이 책의 교훈에 따름으로써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교회 정사 4:461)
2. 주님의 기쁨부음을 받은 자들의 영감받은 말씀...예언자, 선견자, 계시자들의 권고, 지역의 교회 지도자들 역시 그들이 감리하는 사람들에게 영감의 가르침을 줄 수 있습니다.
3. 주님의 영...세상 사람들은 그들을 인도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리스도의 빛을 받고 있으나, 우리는 성신의 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성신이 우리 생활에 완전히 작용하기 위해서, 우리는 영적인 교류의 통로를 언제나 열어 놓아야 합니다. 우리의 통로가

깨끗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기가 더 쉬워집니다. 우리가 그의 속삭임을 더 많이 받고 따를수록 우리의 기쁨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우리의 통로가 죄에서 깨끗해지지 않는다면, 실제로 악마로부터 속삭임을 받을 때에도 어떤 문제에 대한 영감을 받은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해 가기 위해, 우리는 매일 경전을 공부하고, 아침, 낮, 밤으로 개인적인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가족, 교회 및 국가를 통해 아버지의 자녀들에게 봉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좋은 것을 위해, 예정표, 시제 또는 시기를 마련하십니다. 선교 사업을 할 때가 되면, 그것이 결혼 생활이나 교육보다 우선 순위를 차지합니다. 성장하여 올바른 동반자를 찾게 되면, 학업을 핑계로 결혼 생활을 미루어서는 안됩니다. 이들 세 가지 선교 사업, 결혼, 교육은 모두 필수적인 것이지만, 각각의 것에 대하여 합당한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그가 주신 계명을 지킬 그리스도의 백성들이 더욱 더 필요합니다.

예수께서 사람에게 사랑이 더하여 줌

우리가 우리 이웃을 가장 크게 축복할 수 있는 방법은 훌륭한 선교사, 훌륭한 아버지와 어머니들이 되어... 문제를 가진 자녀들이 되게 하기 보다는 세상의 문제를 해결할 의로운 후손을 키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할 가장 중요한 일은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 있습니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어떤 국가도 가정보다 더 강하지 않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남자에게 있어, 주님의 집에서 결혼하고 가족을 이끌어 나가는 의로운 족장이 되는 것만큼 위대한 부름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하고 부르며 말씀드릴 때 기뻐하십니다. 여자에게 있어 주님의 집에서 결혼한 의로운 어머니로서 합당한 후손을 키우는 것만큼 위대한 부름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배의 대상과 아내와 직장을 찾고... 이 세 가지를 모두 다 사랑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우리 생활에서 예배의 역할을 결정하는 데서, 우리는 각기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는 유일한 참된 교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지식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란 다만 물문경을 주의깊게 읽고 모로나이가 제시한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권고하거니와, 너희가 이 기록을 받거든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기록들이 혹 참된 것이 아닌지 간구하여 보라. 너희가 참 마음 참 뜻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으로써 간구할진대, 하나님께서는 성신의 능력으로 이것들이 진실함을 밝히 나타내어

보이시리라."(모로나이서 10:4)

물문경이 참되다면...나는 참으로 그러함을 간증합니다....요셉 스미스는 예언자였습니다. 요셉 스미스가 예언자였다면,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로서 그가 세운 교회, 곧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는 참됩니다. 교회가 참되다면, 교회의 머리에 하나님의 예언자가 계십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예수께서 지혜와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인간의 사랑을 받았듯이, 우리가 그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우리의 지도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으로써 정신적, 신체적, 영적 및 사회적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아이다호주, 릭스 대학에서 행한 말씀에서 발췌.*

가정 복음 교사를 위한 제언

강조 사항. 여러분의 가정 복음 교육에서 다음 사항을 강조하시기 바랍니다.

1. 인생의 가장 큰 싸움은 우리 자신의 영혼의 소리없는 방 안에서 싸우는 것입니다.
2. 주님은 온갖 유혹을 받게 되셨으나, 그는 모든 싸움에서 이기셨습니다. 그는 어떠한 유혹이나 불합리를 극복하는 방법을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장점과 약점을 아시며, 개인적인 계시로 우리를 승리로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3. 이 생에서 승리로 나아가는 일반적인 길은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걷고 주요한 분야에서 주께서 하신 대로 진보해 나가는 것입니다.
 - ...지혜가 자라, 지식을 합당하게 적용합니다.
 - ...육신의 보살핌으로 건강합니다.
 - ...하나님의 사랑이 더 하여져, 우리가 그에게 가까이 나아갈 때 인생의 여러 면에서 그가 우리에게 시키실 일을 알 수 있게 됩니다.
 - ...다른 사람의 사랑이 더하여져 그들이 생활하는 데서 복음의 가치를 알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토론시 유의 사항

1.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것에 대한 여러분의 느낌을 말한다.
2. 이 기사에는 가족이 소리내어 읽고 토론할 성구나 인용문이 있는가?
3. 방문하기 전에 가장과 이야기를 한 후에 토론을 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겠는가? 정원희 지도자나 감독의 메시지가 있는가?



과학자인 김 호적 형제는 국영 라디오 방송국의 초청으로 생물학에 관해 말할 기회를 받았으나 그 시간에 교회를 소개하였다. 1950년대에 김 형제는 말일성도인 미군 형제들을 초청하여 한국인 구도자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게 했다.



金浩植

김 호 직

한국인 개척자

메니 로이

그가 교회에서 봉사한 것은 팔 년간에 지나지 않았으나, 한국에 교회를 설립하는 데서 그가 미친 영향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크다.

말일성도들은 계시와 예언을 통해 말일에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리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 이 사실이 어떻게 분명히 나타났는가를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1951년까지만 해도 한국 사람중에 한 사람도 교회 회원이 없었으나, 한 세대가 막 지난 오늘날,

한국에는 열 네 개의 스테이크와 하나의 성전이 있다.

이와 같이 성장하게 된 공의 대부분은 현대의 개척자 김 호직의 노력과 영향으로 돌려져야 한다.

1905년 4월 16일에 평안북도 지방에서 태어난 김 호직은 십대에 서울의 남쪽에 있는 농업 도시 수원에 있는 학교에 다니기 위해 남쪽으로 이사했다. 그는 1924년에 수원 고등 농림 학교를 졸업하고, 1930년에는 일본 도호꾸 대학에서 생물학 학사 학위를 받았다. 남들에 비해 고등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는 바로 영향력있는 직책에 오르게 되었다.

한국으로 돌아온 후에, 그는 숙명여대 학장이 되었다. 그후, 1946년에, 그는 수원 농업 시험소 책임자로 발령받았다.

전에 같은 동료였으며, 한양 대학교 총장을 역임하고 현재 이사장인 김 연준씨는 “그가 가장 관심을 보였던 것은 한국인의 생활을 질적으로 향상시키는 방법을 찾는 것이었다.”고 회상한다. 김 호직은 한국인 식생활의 영양을 향상시키는 방법에 대한 연구에 주력했다.

그러나 그는 농업계에서 가장 최근에 나온 이론과 발견해낸 것들을 더 많이 배우고자 열망했다. 시험소에서 그와 함께 일한 미국인 과학자들은, 한국에는 과학 및 교육계에서 선진 교육을 받은 지도자들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이러한 소망을 부채질했다. 한국의 이 승만 전대통령은 나라에서 영양이 부족한 국민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보다 효율적인 방법을 배워 오도록 그를 미국에 보내기를 원했다. 그래서 김 호직은 영양학계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 뉴욕에 있는 코넬 대학에 등록하기로 계획을 세웠다.

그가 1949년에 미국으로 갈 때, 그의 마음을 가득 채운 것은 교육에 대한 열정만이 아니었다. 그는 청소년 시절부터 종교에 관심이 있었으므로 여러 교회를 찾아 다녔다. 어느 것 하나도 그의 영적인 굶주림을 충족시켜 주지 못했다. 소년 시절에, 그는 다른 종교 움직임도 보았다. 그는 또한 불교 수련원에서 연구도 했다. 1925년에, 그는 어느 신교의 교회에 가입하여, 그 조직의 장로가 되었다.

한국의 초기 말일성도 개종자이며, 현재 서울에 있는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한국 관리 본부 대표인 한 인상 형제는 이렇게 회상한다. “김 박사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라는 것과 같은 정통적인 기독교 개념에 대해서는 큰 신앙을 갖고 있었으나, 신교의 다른 면 즉, 예정설과 같은 이론적 혼란과 거짓 교리에 대해서는 불만을 품고 있었습니다.” 1935년에 그의 세계 아들이 갑자기 죽음에 따라

영적인 만족을 갈구하는 김 박사의 열망은 더욱 깊어만 갔다.

영의 지시를 받음

그는 미국에 오기 오래 전부터, 하나님의 영을 믿고 그의 인도하심을 구했다. 그가 신앙의 덕을 본 것은 고국을 떠나기 직전에 그의 훌륭한 집과 차와 다른 재산을 다 팔아야겠다고 느꼈던 때였다. 그는 팔아서 그 돈을 아내와 자녀들에게 주어 생활하게 했다. 이처럼 분명히 무익하게 보이는 행동을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김 박사는 다만 영이 그에게 그렇게 하도록 지시했을 뿐이라고 대답했다.

그가 미국에 도착한 뒤, 몇 달 뒤에, 그 이유가 분명히 밝혀졌다. 1950년 6월에 북한의 침략으로 전쟁이 터졌던 것이었다. 그가 전에 살던 집은 폭탄에 부서졌으며, 한국 정부는 모든 자동차를 압수하여 군대에서 사용하게 했던 것이다. 그러나 김 박사의 가족은 그의 부재시에도 경제적으로 안정을 누릴 수 있었다.

김 박사는 영의 도움을 받아 미국에서 “참된 교회”를 찾을 수 있기를 희망했다. 그는 코넬 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이수하는 동안, 뉴욕의 이타카 부근의 여러 교회 모임에 참석했다. 그러나 그가 찾고 있던 응답은 바로 그의 문 앞에 놓여 있었다.

이 한국인 교육자는 철학 박사 과정을 밟고 있던 올리버 웨이먼과 함께 사무실을 나누어 썼다. 같은 사무실을 쓰는 그의 동료와 마찬가지로, 올리버 웨이먼은 대부분의 다른 대학원 학생들보다 나이가 많았다. 그는 또한 말일성도였었다.

두 사람은 사이좋은 친구가 되었다. 그러나, 그들의 광범위한 토론에서, 웨이먼 형제가 코넬 대학을 떠나기 얼마 전인 그날 까지만 해도 종교에 대한 것은 포함되지 않았는데, 그제서야 그의 한국인 친구는 그의 교회에 관한 책을 가지고 있느냐고 물었다.

“나는 당신이 담배피고 술마시는 것을 한번도 못 보았오.” 김 박사가 웨이먼 형제에게 말했다. “당신이 욕을 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말을 하는 것도 한번도 들어본 적이 없오. 당신은 다른 누구보다 더 열심히 더 오래 공부하지만, 일요일에는 한번도 여기서 당신을 본 일이 없오. 당신은 여러 면에서 다른 점이 있어요. 어째서 그렇게 생활하는지 말해 줄 수 있겠오?”

웨이먼 형제는 그에게 제임스 이 탈메지 장로의 신앙개조를 한 권 주었다. 김 박사는 일주일도 안되어 그 책을 다 읽었다.

金浩植

“그는 나에게 그 책을 자신이 읽어본 것 중에서 복음에 대한 가장 훌륭한 책이라고 말하고, 그 책을 그대로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웨이맨 형제가 회상하는 말이다. 물론경을 한 권 받은 한국인은 단숨에 그 책을 읽고 그 책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고 미국인 친구에게 말했다. 그것은 성경보다 더 완전하고 이해하기 쉽다고 말했다.

국민을 위하여

김 박사는 말일성도 교리에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으나, 교회의 몇몇 교리를 도입하면 자기가 다니는 신교파 교회도 내부로부터 개혁할 수 있다고 믿고 있었다. 그는 그 지역의 지부에 참석하기 시작했으나, 신교파 교회 모임에도 계속해서 나갔다.

웨이맨 형제가 코넬 대학에서 마지막 보내는 날, 친구들에게 작별 인사를 나누고 있을 때, 김 박사가 그에게 다가왔다. 웨이맨 형제는 그 한국인에게 왜 조국과 가족을 남겨두고 미국에서 공부하기를 결심했는지 물어 보아야겠다는 느낌이 들었다. 한국인 학자는 그의 국민을 위해서 코넬 대학에서 배울 수 있는 영양학에 관한 새로운 지식이 필요했던 것이라고 대답했다.

당시의 일을 웨이맨 형제는 이렇게 회상한다.

“나는 나의 간증을 전하고…주께서 그에게 미국에 오도록 하시어…그가 복음을 받아들여 그것을 그의 국민들에게 가져가 그곳에서 위대한 선교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준비를 시키신 것이라는 나의 의견을 말했습니다. …나는 그에게 주님께서 그를 위해 마련하신 사업을 행하기를 거절한다면…다른 사람이 그를 대신하게 될 것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웨이맨 형제는 다시는 김 박사를 보지 못했으나, “내가 간증을 할 때 내게 감동을 준 영이 동시에 그에게도 감동을 주었음을 확신했습니다. 나는 그의 표정이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김 박사의 사고 방식은 실제로 변했다. 그는 계속해서 열심히 복음을 공부했으며, 이번에는 침례에 전념했다. 그를 가르친 세네카 구역 선교사들이었던, 돈 시와 제널 우드는 이렇게 회상한다. “우리가 김 형제와 검토하는 형식으로 시작하자마자, 그는 손을 들어 울리고 힘을 주어 ‘아니, 그것은 벌써 내가 받아들인 것이요. 다른 것을 들려 주시오.’하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는 특히 지혜의 말씀에 관한 토론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다. 우드 장로가 교리와 성약 89편을 읽자 김 형제의 뺨에 눈물이 흘렀다.

“아!”하고 그는 울면서 말했다. “내가 이곳에 왔을 때 이 모든 사실을 알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우리 정부에서는 우리 국민에게 합당하게 식품을 대는 방법을 찾아오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가축을 놓아 기를 땅이 없으니, 어떻게 해야 할 지 몰랐습니다. 내가 미국에서 연구한 전체의 시간은 주님께서 우리가 사용하도록 항상 원하셨던 곡식으로 국민의 식량을 대는 방법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김 형제는 주님의 건강 법칙을 온 마음을 다해 받아들였다.

선교사 토론이 끝났을 때, 김 형제는 교회에 가입할 문제가 된 것뿐만 아니라, 요셉 스미스와 올리버 카우드리가 침례받았던 같은 장소에서 침례받기를 원했다. 1951년 7월 29일에, 회복된 교회의 첫번째 침례를 기념하는 기념비가 서 있는 사스케하나 강가에서, 세네카 지부의 조셉 에이 다이 지부장이 첫번째 한국인 말일성도를 침례해 주었다. 김 형제는 침례받고 물에서 일어나면서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는 음성을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후에 그의 경전 앞에 그 일에 대하여 기록하고, 그의 침례 날짜 밑에, “내 양을 먹이라는 말씀이 주어지다.”라고 써 놓았다.

예언자와의 악수

박사 학위 과정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가기 며칠 전인 1951년 9월 어느 날 김 형제는 우드 형제 부부와 함께 구모라 언덕 패전전에 참석했다. 일요일에 그들은 새크리드 구르부에서 지역 선교사들을 위한 특별 간증 모임에 참석했다. 모임이 끝난 뒤에, 김 형제는 역시 그 모임에 참석했던 데이비드 오 맥케이 대관장을 만났다. 우드 형제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숲에서 걸어 나올 때, 김 형제는 왼손으로 오른 손을 감싸 쥐고 흔들며, 뺨이 아직도 젖은 채, 계속 말을 되뇌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예언자와 악수했어요.’”

새크리드 구르부에서 수천 마일 떨어진, 김 형제의 고국땅은 전쟁으로 부수진 문명의 잔재로 쓰레기 더미를 이루고 있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도시와 공장이 폐허화되고, 수백 만의 가정과 주택이 파괴되었다. 굶주린 피난민들이 이동 천막에서 살았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김 형제는 그의 양을 치라는 주님의 부름을 받았던 것이었다. 그러나 그는 아무런 도움없이 이 막중한 임무를 받게 된 것은 아니었다.

한국에서는 전쟁으로 인해 부대에서 말일성도 군인들이 가진 예배 모임을 통해 교회 조직의 외양을 갖추게 되었다. 김 형제는 이러한 모임에 참석하였으며 가족을 가르칠 군인들을 초대하여 전도 생활을 시작하였는데, 그들 중에는 전에 선교사를 지낸 사람들도 있었다. 그들이 영어로 가르치면, 김 형제가 통역해 주었다. 그는 또한 이 비공식 선교사들과 다른 구도자들을 찾는 데 합세했다. 1952년 7월에, 한국인 구도자들은 군인들과 별도로 주일학교 모임을 가질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수가 되었다.

김 형제의 제자인 한 여학생이 깊은 절망감을 느껴 자살을 생각하고 있다고 심중을 털어놓았을 때, 그는 이렇게 말했다.

“자매님, 나는 복음을 알고 있습니다. 자매님에게 새 희망과 새 삶을 줄 수 있는 훌륭한 복음입니다. 자매님이 그것을 공부하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나는 이러한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건강과 행복과 기쁨 그리고 다른 사람도 그러한 것들을 찾도록 도와 주고자 하는 소망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녀와 그녀의 딸은 1952년 8월 3일, 부산 송도 해안에서, 베풀어진 한국에서 처음으로 침례받은 네 사람 중에 속해 있었다. 다른 두 명의 새로운 회원은 김 형제의 아들 태환과 딸 영숙이었다.

그의 딸딸 정숙은 1953년에 수영 미군 기지에 있는 수영장에서 침례를 받았다. “물은 따뜻했어요.”하고 그녀는 말한다. “그러나 날씨는 몹시 추웠습니다. 그러나 나는 너무나 행복해서 날씨가 얼마나 추웠는지 몰랐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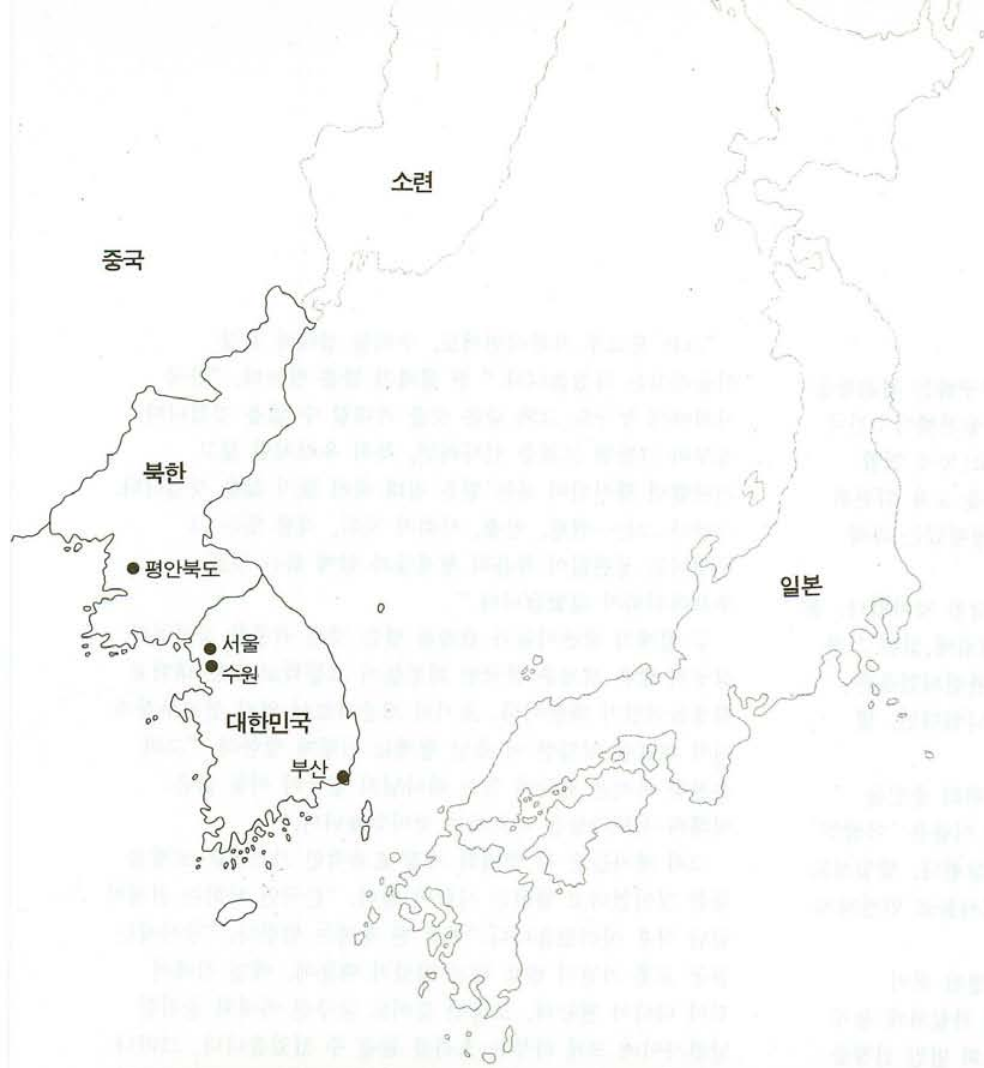
김 형제는 구도자들을 그의 집으로 초대하여 주일마다 복음에 대한 토론을 했다. 그는 미국인 회원들을 위해 통역했고, 때로는 직접 구도자들을 가르치기도 했다. 이러한 모임에 여러 번 참석한 어떤 한국인은 김 형제가 “전쟁에 시달린 이 땅에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영적인 재건”이라고 몇 번 씩이나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했다.

“하나님께 간구하오니”

한국인 개종자의 수가 점차 증가해 가는 동안, 김 형제는 또한 사회적인 면에서 성공을 거두고 있었다. 그는 전쟁으로 문을 닫았던 부산 국립 수산 대학 학장으로 임명되었다. 수 개월도 못되어, 그는 정상적으로 운영했다. 그것을 본 많은 사람들이 탄성을 발했다. 그 공적을 치하하는 자리에서, 김 형제는 운집한 학부형과 교수들에게 말했다. “이러한 공적을 나 자신에게 돌릴 수 없습니다. 믿을 수 없는 것을 성취하신

김 호적 형제는 이 승만 대통령에게 주일학교 일을 보느라 회의에 곧바로 올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1950년대 한국 방문시 심이사도 정원회의 해롤드 비리 장로(중양)와 북극동 선교부장인 윌튼 로버트슨 형제가 김 호적 형제를 만나고 있다.

金浩植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지도 능력을 축복받고 거룩하신 도움을 추구하는 겸손함을 갖춘 김 형제는 다른 고위 직책으로 빠르게 승진했다: 건국 대학 축산 대학장; 홍익 대학 학장; 유네스코(국제 연합 교육, 과학, 문화 단체) 한국 수석 대표, 서울 교육 위원회 위원장; 문교부 차관이 되었다. 그는 또한 정평있는 과학 출판물을 써 내기도 했다.

김 호직 형제가 성취한 사회적 신분은 상당한 것이었다. 한 형제는 이렇게 말한다. “한국에서의 교회 설립에 있어 그와 같이 정치적 사회적으로 힘이 있는 사람이 관련되었음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김 박사가 아니었다면, 몇 십년은 늦어졌을 것입니다.”

실상, 한국에서 교회의 공식적인 법적 지위의 승인을 받기란 가망없는 것으로 보였다. “물론이란 이름은 ‘이방인’ ‘이교도’를 뜻한 것”이었다고 한 형제는 회상한다. 말일성도 선교사들은 “그들이… 품위있는 기독교 선교사들로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에서 허용되지 않았다.

1956년에 김 형제가 서울 교육 위원에 임명된 것이 행운이었다. 시의 모든 종교적 문제가 그의 관할하에 들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는 직접 한국에서의 교회 법인 신청을 위원회에 제출했다. 그의 보증으로 통과 되었다. “거의 기적같은 것이었습니다.” 한 형제가 한 말이다.

김 호직 형제는 그의 명예를 내걸고 말일성도 선교사들의 재정적인 후원자가 되고 그들이 한국 백성들에게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을 것을 보증하여 그들이 한국에 들어오는 허락을 받아 냈다. 처음으로 두 명의 선교사가 1956년 4월 일본으로부터 도착했다.

선교 사업에 끼친 영향

한국 성도의 첫세대에 미친 김 형제의 긍정적인 영향은 그가 선교 사업에 끼친 영향만큼이나 중요한 것이었다. 한국 선교부장과 지역 대표로 봉사한 첫번째 한국인인 한 인상 형제는 고등학교 시절에 교회에 입교했다. 1956년에, 그는 김 형제가 주일학교에서 가르친 지부에 참석하기 시작했다. 그는 지난 일을 이렇게 회상한다. “김 박사는 모든 한국 성도들을 위한 비공식 축복사였고 영적인 지도자였습니다. 그의 성품은 새로운 회원들과 구도자들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고는 했습니다. ‘김 박사가 이 원리를 받아들인다고 말하면, 우리는 그의 진실성과 성실성에 대해서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는 문교부 차관이면서도, 우리를 십대와 곧잘 어울리고는 하셨습니다.” 한 형제가 말을 잇는다. “한국 사회에서 누구도 그와 같은 것을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정부의 그만한 고위층 인사라면, 특히 우리처럼 젊고 가난했던 평시민이 하는 일은 절대 하려 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연령, 인종, 사회적 지위, 직함 또는 그 무엇이든 상관없이 복음의 형제들과 함께 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김 형제가 젊은이들과 관계를 맺은 것은 귀중한 것이었다. 상당히 많은 새로운 한국인 회원들이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학생들이었기 때문이다. 초기의 개종자로서 역시 선교부장과 지역 대표를 역임한 이 호남 형제는 이렇게 말한다. “그의 온전한 목적은 한국에 있는 하나님의 왕국의 이들 젊은 미래의 지도자들을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제자들은 김 형제의 가장 효과적인 가르침은 모범을 통한 것이었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다. “한국인 사회는 전쟁이 끝난 직후 어려웠습니다.”하고 한 형제는 말한다. “당시에는 공공 교통 기관이 별로 많지 않았기 때문에, 매일 집에서 걸어 다녀야 했는데, 조금만 걸어도 굶주린 아내와 술취한 남편 사이에 크게 다투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김 박사는 천국같은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아내와 가족을 대하는 태도는 다른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김 형제는 한국 성도들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다. “내가 구세주와 함께 할 수만 있다면, 내 생명과 재산과 직책을 다 포기한다 해도 상관치 않을 것입니다.” 그의 말은 들은 사람들 중에 그의 성실성을 의심한 사람이 있었다면, 다음의 예로 그 의심이 사라졌을 것이다. 그의 생애에서 있었던 사건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의 결심을 입증해 주었다.

예를 들면, 한번은 한국 방송국에서 그를 초청하여 생물에 관한 주제로 전국적으로 방송되는 강좌를 부탁한 일이 있었다. “십분간의 방송 시간 동안 그는 다만 교회에 관한 이야기만 했습니다.” 한국 관리본부에서 근무하였던 박 재암 형제는 말한다. “마치 주일학교 시간에 말씀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담대한 헌신

김 형제는 또한 다니엘서에서나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일화에서 그의 신앙에 담대하게 헌신하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 한국의 이 승만 전대통령이 어느 일요일에 문교부 차관과 급히 의논할 일이 있었다. 여러 시간 동안 찾아 헤맨

金浩植

끝에, 대통령 비서관은 김 박사가 주일학교 반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을 찾아 냈다. 김 박사는 공과를 다 끝마치기까지 가기를 거절했다. 격하기로 이름난 이 대통령은 불같이 화를 냈다. 그러나 김 형제는 자기는 주일학교에서 가르치는 임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고 생각했으며, 대통령의 소환에 응하기 전에 그것을 마쳐야 할 의무를 느꼈다고 차분히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김 형제의 어깨를 두드리며 “잘 했오.”하고 말했다.

김 형제는 1956년 7월에 “교회에 더 많은 시간과 정력을 바치기를 원하기 때문에” 공직에서 사임했다. 그는 유락동 지부장이 되었으며, 1955년에 한국 지방부 초대 지방부장이 되어 운명할 때까지 그 직을 맡았다. 그는 몇 권의 교회 책자를 한국어로 번역하는 작업도 했다.

김 형제는 1959년 8월에 인도에서 열린 국제 연합 식량 및 농업 기구 회의에 한국 대표로 참석했다. 그가 귀국한 직후 그를 만난 이 호남 형제는 그에게 피로해 보인다는 말을 했다. 김 형제는 대회 기간 중에 몸이 안좋아 서둘러 귀국한 것이라고 대답했다. 귀국한 지 한달도 못된 8월 31일에, 그는 뇌일혈로 사망했다.

김 형제의 장례식에 “한국내의 거의 모든 대학의 총·학장들이 와서 경의를 표했습니다.”고 에프 레이 하킨스 형제는 말한다. 그는 1950년대 말에 한국에서 선교사로 있었으며 후에 한국 선교부장이 되었다. “모든 독신 청년들은 김 형제가 한번 이상 직접 그들을 교회로 초대하여 복음에 대하여 토론했다고 말했습니다.” 하킨스 형제의 생각은 비문과 일치하고 있다: 그는 엘리트 계층과 함께 생활했지만, 그의 권익은 그에게 하나님의 왕국 건설을 위한 단순한 도구에 불과했었다.

그가 교회에서 봉사한 것은 팔 년간에 지나지 않았으나, 한국에 교회를 설립하는 데서 그가 끼친 영향을 헤아릴 수는 없을 만큼 크다. 그는 새로운 유형의 물론 개척자, 즉 “물몬”이라는 말이 전혀 알려지지 않고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라는 이름을 들어 보지도 못한 새로운 나라에 복음을 가져온 사람이었다.*

메니 로이는 시카고 하이츠 일리노이주 스테이크, 하이드 파크 워드의 미국인 수화 통역사이다. 그는 시카고 대학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 과정을 밟고 있다.

사랑 우리가 함께 나누는 사랑

캐드린 하드캐슬

우리 결혼 생활에서 생기는 차이점을 함께 모아
아름답고, 영원한 걸작품을 만들어 낸다

십구 년이 넘게 결혼 생활을 해 오는 동안, 아홉 명의 예쁜 자녀들이 우리 가정을 축복해 주었는가 하면, 남편 크래그에게는 갖가지 재정적 및 직업상의 실망이 따르고, 나는 건강이 약화되고, 점차 증가되는 집밖에서의 책임으로 한정된 시간에 더욱 시달리게 되었다. 그동안 스트레스가 증가해 가면서, 나는 혼자서 이런 말이나 생각하게 되었다. “아마 우리는 서로 잘 맞지 않는 모양이다.”

나는 또한 남편과 내가 함께 외출이라도 할라치면, 우리는 공통되는 것을 많이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예를 들면, 남편이 영화보기를 원하면, 나는 성전에 가기를 원했다. 그가 미식 축구 게임이나 그와 같은 것을 보기 원할 때, 나는 무도회나 연주회를 더 좋아했다.

어느 날 남편 크래그가 내가 말했던 것 처럼, “아마 우리는 서로 잘 맞지 않는 모양이야”라고 혼자 말하는 것을 알았을 때, 절망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이 말을 하고 나서는 고민하는 것 같았다. 왜냐하면 남편은 우리의 결혼 생활에 대해 그리고 우리가 느끼는 좌절감에 대해 그 다음 며칠 동안 기도하며 금식했기 때문이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남편은 이렇게 말했다. “당신과 나는 빨강, 노랑, 파랑의 원색과 같소. 우리 두 사람 사이에는 성공적인 결혼 생활과 영원한 가족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요. 우리가 함께 하면 아무 것도 부족한 것이 없어요. 다른 모든 색깔을 만들기 위해서 세 가지 원색이 모두 다 있어야 하듯이, 당신과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도움으로, 행복하고 영원한 결혼 생활을 만들기 위해 우리의 특성을 혼합하는 능력을 갖고 있어요.”

나는 그것에 대해 생각해 보다가, 새로운 면에서 우리의 차이점을 보았다. 우리 가족중에서, 남편은 사랑을 발산하는 사람이다. 나도 그렇게 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때때로 그런 능력을 질시해 왔다. 나는 내심 많은 사랑을 품고 있으나, 나의 사랑은 후하게 밖으로 표현되어 나오지 않는 것이다. 한번은 내가 나의 사랑을 잘 표현할 수 없어 슬프다고 말하자, 남편은 이렇게 응답했다. “그러나 당신은 우리 가정에 영성을 가져다 주지 않소? 당신은 경전 읽기를 즐기고 연차 대회 말씀을 듣고 당신이 배운 것을 열심히 다른 사람과 나누려 하오.” 갑자기 나는 크래그와 나는 서로를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돕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나에게 사랑을 주는 법을 보여 주었으며, 나는 경전과 예언자들에게서 배운 것을 그에게 들려주었던 것이다.

내가 매일의 일과에 사로잡혀 있을 때는, 남편이 일을 멈추고 쉬라고 권하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한다. 또한 남편이 아이들의 할 일을 도와 주느라 이일 저일 밀려 있을 때는, 내가 남편에게 좀더 위임을 잘 해서 아이들에게 좀더 많은 일을 시키도록 권고해 주는 것을 고마워한다. 우리는 또한 번갈아 가며 일하는 데에 큰 기쁨이 있다는 것을 배우고 있다. 때로는 남편을 위해 텔레비전을 함께 보고, 때로는 나를 위해 큰 소리로 책을 읽기도 한다.

우리는 사실상 공통된 점을 상당히 갖고 있음을 발견했다. 예를 들자면, 우리는 두 사람 다 식료품 사기를 싫어하는 것이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둘이 다 오래 걷는 것, 우리 자녀들, 교회, 깨끗한 집, 갓 구운 빵과 그리고 서로를 좋아한다는 것을 발견한 것이다. 나는 말하기를 즐기고, 그는 듣기를 좋아한다. 나는 철저하고, 완고하고, 신빙성이 있고, 단호한 데, 남편은 친절하고, 관용적이며, 참용성이 있고, 의연하다. 우리는 승영에 이르는 영원한 목표에 정직하고, 충실하며, 헌신적이고 일치되어 있다.

어느 날 아침 나는 성전의 해외 왕국실에 앉아 있다가, 그와 나는 그 방의 산들리에에 달려 있는 수정 프리즘같은 생각이 들었다. 그것은 빛을 받으면 반짝이는 무지개 색으로 바뀌어 준다. 우리가 나누는 사랑은 우리의 모든 차이점을 합쳐서 아름다운, 활짝 피진 영원한 관계를 이루어준다.

우리가 자기 연민과 분노 및 이기심에 굴복하지 않을 때, 힘을 합치게 된다. 우리 둘 중에 누구도 포기하지 않는 한, 내가 어떤 일을 잘 하지 못하기 시작할 때는 남편이 나를 돕고, 남편이 못하면 내가 그를 도와 주어, 우리는 훌륭한 결혼 생활을 계속해서 이루어 나갈 것이다.

우리는 함께 그 꿈을 실현시켜 나갈 자원을 갖고 있다. 우리는 우리의 결혼 생활과 가족을 이루어 나가는 공동 책임을 지고 있다. 우리가 다 마치면, 우리가 만들어낸 걸작품은 우리의 상이 될 것이다. 그 걸작품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이 될 것인가는 우리가 결정한다.*

캐드린 하드캐슬은 가정 주부이며, 샌디·유타 크레센트 노스 스테이크의 크레센트 제4와드 방문 교사로 일하고 있다.

“나는 안되요, 나는 담배도 피고 술도 마십니다”

조안 애트킨슨

이 십 오년 전 어느 날 나는 다리미질도 하고 집안에 있는 여러 명의 자녀를 돌보느라 정신이 없었다. 또한 텔레비전 쇼를 보며 담배를 피우고 있는 중이었다. 초인종이 울렸다. 정장을 한 두 사람이 온화한 미소를 띠고 문가에 서 있었다. 그중 한 사람이 와드의 감독이라고 자기 소개를 했다. 나는 그들을 안으로 불러들여 열 살 때 침례를 받고 교회에 들어왔으나, 전혀 활동적이지 못하며 복음에 대하여 아는 바가 없다고 단숨에 설명했다. 몇 달 전에, 나는 교회 모임에 참석한 일이 있었는데, 출석부에 내 이름을 적어 넣었으나 아무도 내게 말하는 사람이 없었다

감독이 미소지으며, 지그시 나를 바라보고 말했다. “나는 청녀반 교사를 위해 기도해 왔는데, 주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나는 그에게 제정신이나고 말했다. 그는 계속 미소를 짓고, 가져온 교재를 펴들고 공과를 가르치는 것에 관해 설명하기 시작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하고 나는 말했다. “나는 담배도 피고 술도 마시며 십육 세 소녀들을 가르칠 수 없어요.”

그러자 그는 내가 다음 수요일부터 가르치게 되어 있다고 말했다. 나는 “안됩니다.” 소리만 계속하고 그는 계속 웃음을 띠며 받아 주었다. 나는 그에게 내가 비활동이라고 말했다.

그는 “더 이상은 아니지요.”하고 말했다.

나는 “담배를 씹니다.”하고 말했다.

그는 이렇게 대꾸했다. “다음 수요일까지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매님을 사랑하십니다. 자매님은 그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는 미소를 짓고, 교재를 놓고, 문밖으로 걸어 나갔다.

나는 아찔했다. 나는 화가 나서 공중에 대고 소리를 질렀다. “다른 사람을 찾아보는게 좋을 겁니다. 나는 하지 않을테니까!”

나는 그 책을 무시하려고 노력했지만, 나의 호기심이 나를 제치고 일어섰다. 나는 첫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열두 과를 모두 읽었다. 수요일이 점점 가까워졌다. 나는 그 공과 내용을 훤히 알았다. 수요일 내내 나는 가지 않겠다고 혼자 말했으나, 그

시간에 나는 교회에 도착해 있었다. 나는 너무 겁에 질려 떨고 있었다. 나는 빈민가에서 자라, 싸움패들 속에서 살았으며, 먹을 것 때문에 싸우고, 술취한 아버지를 감옥에서 나오게 하고, 청소년 범죄 활동에 시간을 보냈다. 나는 어떤 면에서든 내 식대로 싸울 수 있었으나, 여기 있는 나는 감독에 의해 궁지에 처박히게 된 것이다. 좋다, 그에게 보여 주자! 이렇게 되어 나는 예배당에 앉아 있었으며 그들은 나를 새로운 월계반 교사로 소개하고 있었다.

교실에서, 천사처럼 생긴 두 명의 여학생을 마주 한 나는 앉아서 공과를 한자 빠짐없이, “반원에게 질문한다.”라는 구절까지 그대로 전해 주었다. 공과를 마친 뒤 나는 재빨리 그 자리를 떠나 집으로 와서 울었다. 며칠 뒤에 초인종이 울려 나는 이렇게 생각했다. “아, 저런, 그 인상좋은 감독님이 책을 가지러 오셨군.” 그러나 아니었다. 그것은 두 명의 월계반 소녀였다. 한 학생은 과자를, 한 학생은 꽃을 들고 왔다. 그들은 안으로 들어와 나를 가르쳤다. 와드내의 사람들에 관하여, 청녀 프로그램에 관하여, 그리고 반원들에 대한 것을 가르쳤다.

반에는 열 여섯 명의 소녀들이 있었으나, 그들에게는 여러 달 동안 교사가 없었다. 릴라와 로이즈만이 활동적이었다.

나는 그 소녀들을 좋아했으며, 다음 일요일에 그들과 함께 교회에 가기로 했다. 그후에, 그들은 나와 함께 저녁을 먹으러 집에 왔다.

그들의 도움으로, 나는 다른 소녀들도 가르치기 시작했다. 소녀들이 교회로 오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들이 가는 곳은 어디라도 갔다. 우리는 볼링장에서, 차에서, 침실 또는 뜰앞에서도 공과를 했다. 내가 공과를 할 필요가 있는지는 그들의 결정에 따랐다.

어느 날 우리는 벽장에 숨어있는 소녀에게 공과를 하고 있었을 때, 그녀가 튀어 나와서 “내 자유의지는 어떻게 된 거지요?”하고 물었다. 나는 그녀에게 나는 그 공과에 대하여 한번도 들어본 적이 없으니 다음 수요일에 그녀가 나와서 우리를 가르쳐 줄 수 있겠느냐고 물었다.

릴라와 로이즈는 내 딸같이 되었다. 그들은 나에게 바느질, 성구 찾기, 그리고 무엇보다도 웃는 것을 가르쳐 주었다. 여섯 달

뒤에는 열 네 명의 소녀들이 반에 나왔으며, 일 년이 안되어 모두 활동적이 되었다. 우리는 함께 기도하고, 복음을 공부하고,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을 배웠다. 우리는 어린이 병원도 여러 번 방문했다. 우리는 사랑의 유대 안에서 함께 울고 웃었다. 십오 개월 후에, 나는 청녀 회장이 되었다.

나는 일 년여 가르치는 동안 감독에게 “아니요”라는 말은 결코 하지 않기로 결심했으며, 그렇게 하고 있다. 두 명의 십육 세 소녀들이 나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었다. 나는 후에 미소를 짓고

있던 나의 감독님도 그가 처음으로 우리 집에 왔을 때 내가 그를 두려워 했던 것과 똑같이 나를 두려워했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내가 공과를 가르치려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었다. 나는 그에게 나타났던 것이다. -나는 그 사실을 기쁘게 생각한다. ! *

조안 애트킨슨은 유치원 교사요 일곱 자녀를 둔 어머니로 캘리포니아 팔로스 버레스 제1와드에 살고 있다.



감독이
미소지으며
지그시 나를
바라보고 말했다.
“나는 청녀만
교사를 위해
기도해 왔는데,
주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나는
그에게
제정신이라고
말했다.

당신을

윌터 엠 혼

1928년 7월 25일, 나는 독일의 헤일브론에 있는 거리에서 전도하고 있었다. 당시, 선교사들은 항상 곁에서 일하지 않아도 되었던 시절이라 내가 거리의 이쪽에서 전도하면 동반자는 다른 쪽에서 전도하는 수가 많았다.

체포합니다

나는 다음 집을 향해 가다가, 어떤 남자가 보도가에 있는 의자에 앉아 있는 것을 보았다. 그는 내가 가는 방향을 적의에 찬 눈길로 쫓고 있었다. 당시 독일의 많은 사람들은

선교사들을 불신했으므로, 나는 그것을 크게 생각하지 않았다.

내가 근처의 아파트 입구에서 어떤 여인과 이야기하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이 내 뒤에서 올라오는 소리를 들었다. 뒤를 돌아보니 제복을 입은 순경이었다. 나는 그가 윗층의 누군가에게 불일이 있겠거니 생각하고, 계속해서 말을 했다.

놀랍게도, 그는 목직한 손으로 내 어깨를 잡고 나를 돌려 세워 그를 보게 했다.



일곱 명의 증인이
나에 대해 불리한 증언을 했다.
나는 독일 감옥에서 여러 해를 보내야
될 것같이 여겨지기 시작했다.

“나와 함께 가야겠습니다.” 그는 조용하게 말했다. “당신을 체포합니다.”

아연실색한 나는 침착해지려고 애썼다. 나는 그 여인에게 사과하고 후에 다시 오겠다고 말했다.

“내가 왜 체포되는 것입니까?” 나는 순경에게 물었다. 그는 나에게 아파트에서 절도 행위로 귀중한 가보인 시계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순경은 나를 고소한 사람은 전날 아침에 시계를 잃어버린 것을 알았다고 말했다. 그는 그 자신과 그의 가족을 제외하고는 내가 그 건물에 들어간 유일한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나는 전날 그 건물에 들어간 것을 기억했다. 일, 이층은 공장이 들어서 있었으나, 삼층은 아파트였다. 내가 그 건물에 들어섰을 때, 어디로 가는 것이며 누구를 보기를 원하느냐고 물었다. 나는 그에게 윗층으로 올라가 그곳에 사는 사람들과 이야기하려 한다고 말했다. 그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으며, 나는 계단을 올라갔다.

삼층 아파트로 들어가는 문이 조금 열려 있었다. 문을 두드렸으나 아무도 대답하는 사람이 없어, 나는 그 자리를 떠나 다른 곳에 가서 전도를 했다.

나는 그대로 순경에게 설명했다. 그는 자신이 선교사를 체포했다는 것을 알고는 깜짝 놀랐다.

그는 나를 데리고 길을 건너 앞서 나를 노려 보았던 사람에게 갔다. 그 사람과 함께 있던 침대가 불안해 하는 것이 보였으나, 순경이 내가 절도범이냐고 그에게 묻자 “예”하고 말했다.

경찰서에서 서장 사무실로 바로 들어갔다. 여러 명의 평복 및 제복 경찰로 구성된 치안 재판부가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구석에는 내가 그 건물에 들어가는 것을 목격했다고 말한 일곱 사람이 앉아 있었다.

한 시간이 넘게 신문이 진행되는 동안, 나는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마음속으로 기도하며, 모든 질문에 정직하게 대답했다.

그런 다음 일곱 명의 증인이 나에게 대해 불리한 증언을

했다. 모두 다 말하기를 가족을 제외하고는, 내가 그 전날 삼층 아파트에 들어간 유일한 사람이라는 것이었다. 나는 독일 감옥에서 여러 해를 보내야 될 것같이 여겨지기 시작했다.

경찰 서장은 내게 변론할 것이 있느냐고 물었다. 나는 간절히 도움을 간구하고, 처음에는 주저하면서 서투른 독일어로 말하기 시작했다. 나는 그 방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독일에 있는 이유와 나의 사명을 설명해 주었다. 갑자기 나는 복음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이상한 느낌이 나의 전신을 감쌌다. 나는 점차 혀와 팔과 나의 얼굴 근육에 대해 자제할 수 없었다.

성령이 나를 구조하러 왔다. 나는 자신있고 힘차게 말을 유창하게 하게 되었다. 내가 사십 오 분간의 간증을 마쳤을 때, 나는 기진하여 거의 바닥에 쓰러질 지경이 되었다. 한참 동안 방안은 쥐죽은 듯이 고요해졌다.

그러자 경찰 서장이 “이 사람은 시계를 가져가지 않았읍니다.”하고 단순하게 말했다.

그는 나 자신과 교회에 대하여 많은 질문을 했다. 방안의 적대감은 사라졌다. 그런 후 그는 형사를 향해 말했다. “이 젊은이와 함께 그의 방으로 가서 그의 소지품을 조사해 보시오. 시계를 찾지 못하면, …분명히 그럴 것이요. 그를 풀어 주시오. 이 어리석은 일을 끝냅시다.”

나는 형사와 함께 나의 숙소로 돌아오면서, 그가 묻는 많은 질문에 대답해 주었다. 내 방에 도달할 즈음에는 나는 선교사 프로그램과 물문경과 주님에 대한 우리의 개념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했다.

형사는 내 책상 서랍에서 두 개의 시계를 찾아 냈다. 하나는 나의 오래된 부서진 시계였고 다른 하나는 나의 소유의 값싼 시계였다. 형사는 떠나면서, 내가 헤일브론에 머물러 있는 동안 도움이 필요하다면 그에게 연락해 달라고 당부했다.

나는 숨을 내쉬며 감사의 표시를 했다. 성신의 능력이 기적같은 형태로 나타났던 것이다. 나는 이 날을 결코 잊을 수 없을 것이다.*

내 반의 모든 어린이를 가르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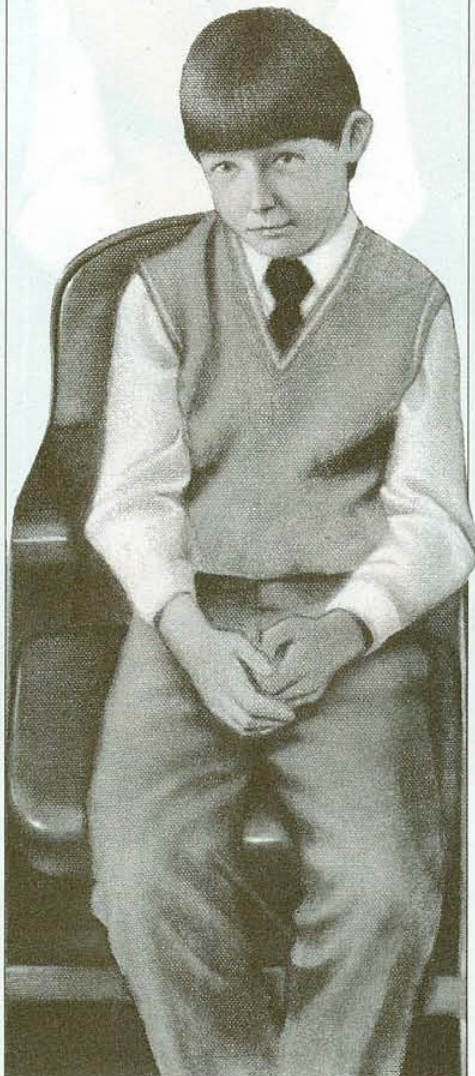
딕시 캐스퍼 벨슨

로버트는
점점 더 난색을 표하기
시작했다.

그 일은 초등학교의 공과로 시작되었다. 나는 여덟 살된 어린이 반 앞에 서서 그들에게 말일의 예언자 한 분의 이야기를 해주고 있었다. 이야기를 마친 나는 그 이야기에서 가르치는 도덕 관념에 대하여 질문하기 시작했다. 반의 모든 아이들은 나의 질문에 답하기를 원했다. 하지만 로버트는 예외였다.

나는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그는 새로 그 반에 들어왔으며, 아마 첫날에 말하기가 부끄러운 것이려니 생각했다. 그러나 대답을 받고, 그것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 중에, 나는 로버트가 점점 난색을 표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는 그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 전주에, 나는 내가 준비한 공과를 마칠 시간을 갖지 못했다. 지금도 역시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을 알았으므로, 나는 다른 아이들을 기다리게 하고 로버트를 위해 다시 설명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다. 나는 계속 나가기로 했다. 나는 속으로 생각하기를, 우리는 언젠가 다시 한번 이 개념을 복습하게 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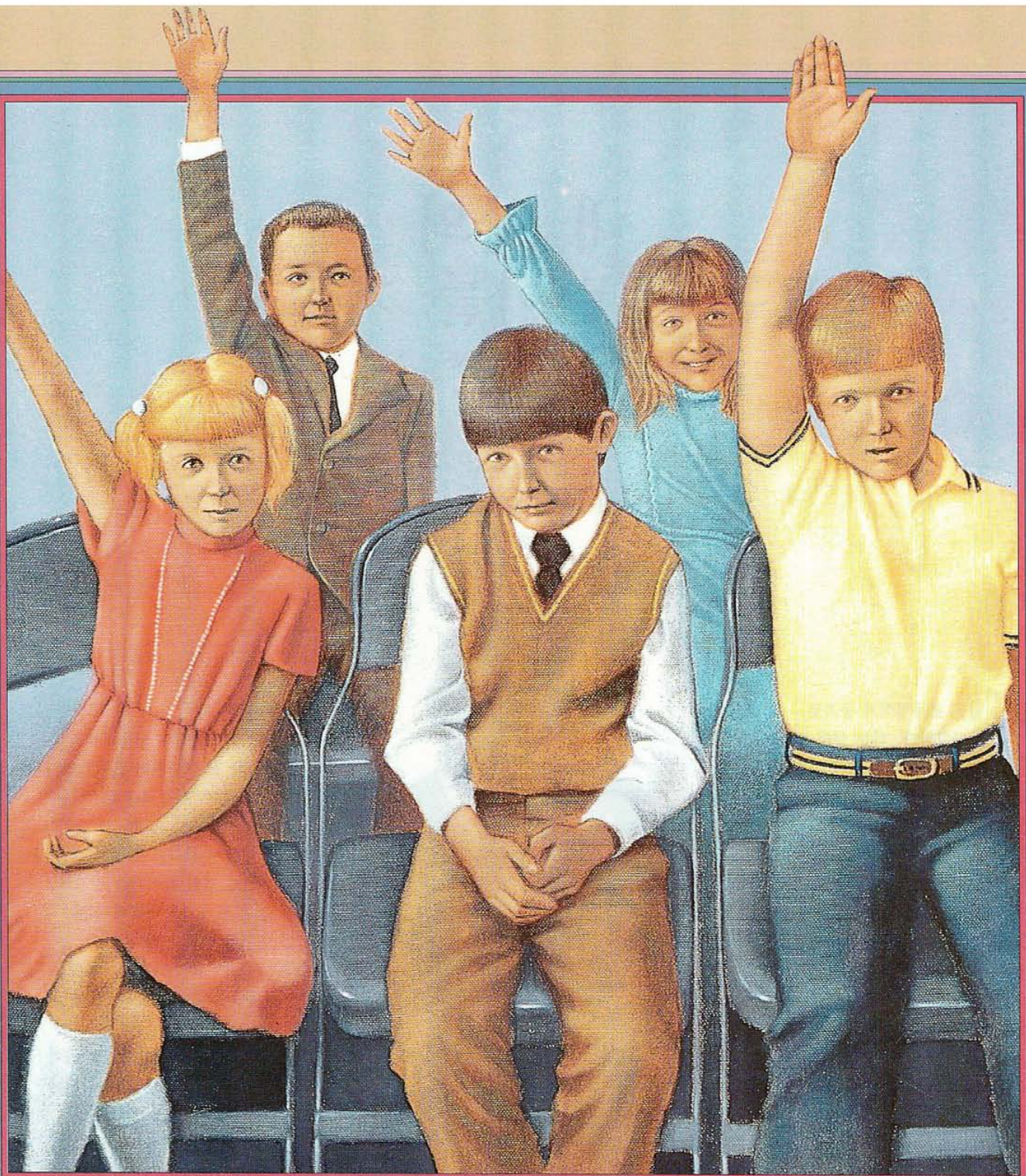


것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나머지 아이들이 이해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교실을 한번 훑어보았다. 로버트에게 눈길이 머물렀을 때, 나는 마음속이 얼어 붙은 듯 했다. 그 순간 마치 그의 얼굴이 사라지고 그 대신에 세 살 난 내 아들, 샘이 들어서는 것같이 보였다. 깜짝 놀라, 그 자리에 서서, 나는 그 변형이 다시 나타나기를 기대라도 하듯이 로버트를 쳐다보았다. 그것은 나타나지 않았으며, 그 후에도 없었다.

그날 밤 늦게 나는 그 사건에 대하여 생각해 보았을 때 내가 한 처사에 대해 죄책감이 느껴졌다. 갑자기 나는 지금부터 오 년 후의 일을 보고 있었다. 샘은 로버트의 의자에 앉아 있었으며, 나는 다른 교사로 대체되어 있었다. 그녀는 내가 한 같은 이야기를 말하고 있었으며, 내가 로버트에게서 받은 것과 같은 반응을 내 아들에게서 받고 있었다.

그녀는 샘을 보고 그가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그녀는 어떻게든 공과를 진행시켜 나갔으며, "다음에 이 개념을 복습하게 될 것이다.



그는 그때에는 이해하게 되겠지.”하고 혼자 말하고 있었다.

나는 샘이 발이 바다에 닿지도 않은 채, 의자에 앉아 있는 것을 보았다. 나는 나머지 반 아이들이 공과를 빠르게 따라가는데 그가 혼자 당혹해 하는 것을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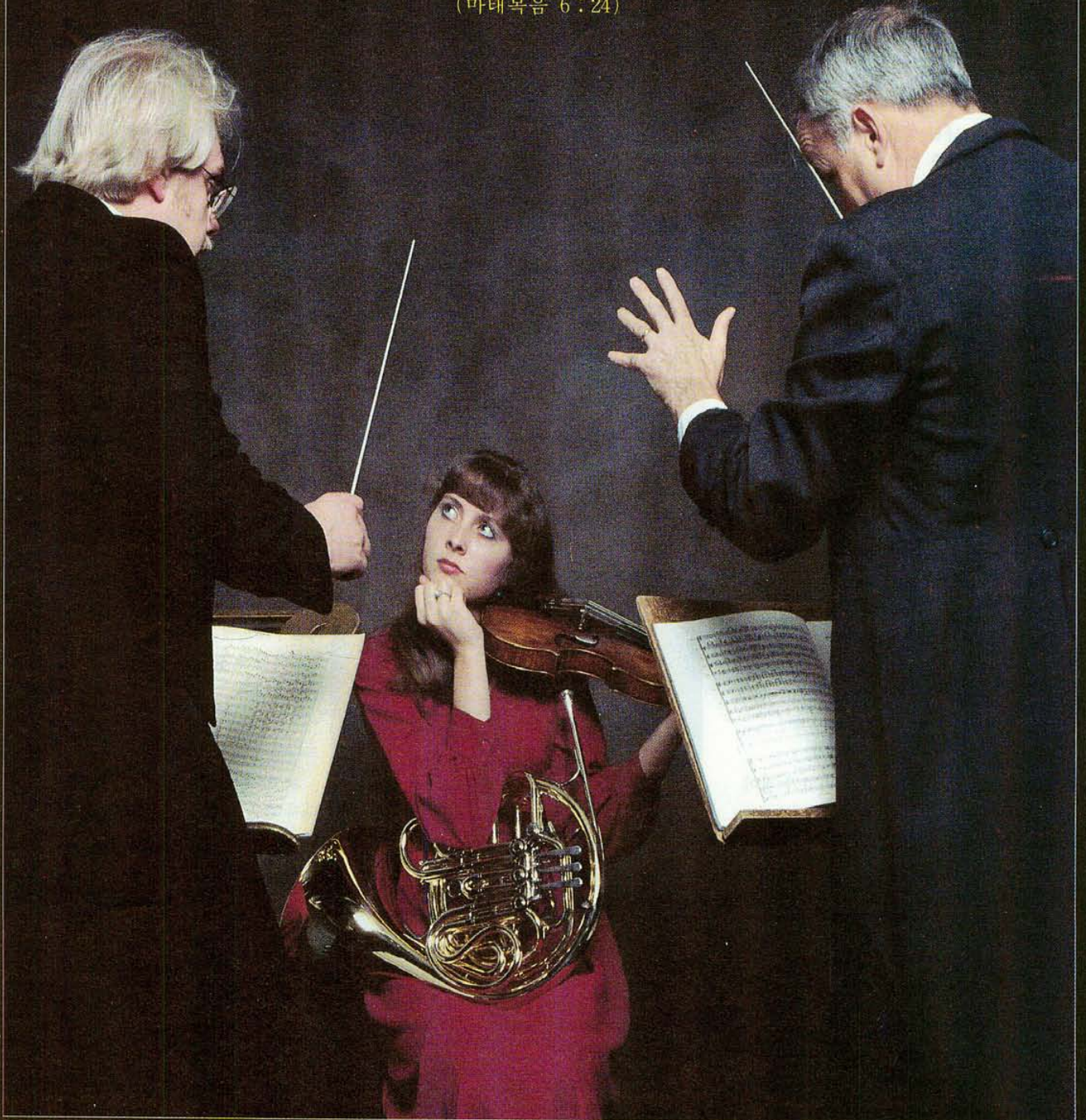
그때 나는 내가 한 처사의 영향을 깨달았다. 나는 내가 단순히 성가심을 받을 수 없다는 이유에서 하나님의 자녀를 지나쳐 버렸던 것이었다. 나는 중요한 가르침의 순간을 잃었던 것이다. 나는 한 어린이를 하나님 아버지에게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기회를 받았으나,

내가 등을 돌렸던 것이다.

나는 그날 배운 교훈을 결코 잊은 적이 없었다. 나는 내가 가르치는 모든 어린이들을 위해 나의 최선을 다한 후에야만 나의 자녀를 위해 다른 교사로부터 최선의 것을 구할 수 있는 것이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마태복음 6:24)



다시는 없으리라

엘레인 본

나는 예배당을 둘러보며 감독이 새로 이사온 가족들을 환영하면서 방금 읽은 그 명단의 사람들을 찾아보았다. 나는 성찬식이 끝난 직후에 나 자신을 소개하고 사귀어 보기로 결심했다.

나는 그보다 앞서 있던 성찬식에서 쇼 자매가 떠나가면서 간증한 것을 생각해 보았다. “오늘은 내가 이곳에서 마지막으로 맞는 일요일입니다.” 그녀는 말했다. “떠나기 전에 나는 여러분과 함께 한 가지 경험을 나누어야겠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샌디 쇼는 지난 해 남편이 학교에 다니는 동안 우리 와드 구역내에서 살았다. 내가 그녀를 처음 알게 된 것이 언제였는지 확실치 않지만, 그녀는 우리 와드의 영적인 교사인 리버 길맨과 특별히 가깝게 지내는 듯 보였다.

나는 쇼 자매가 말한 이야기를 생각해 보았다.

“나는 내가 다니던 와드에서는 사랑과 안정감을 느꼈습니다.”하고 그녀는 말했다. “나는 평생 그곳에서 살아 왔습니다. 남편과 내가 이곳으로 이사왔을 때, 낯선 와드에 다니기가 겁이 나 여러 주일 동안 다니고 싶지도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곧 생활에 공허감을 느껴 다음 모임에 참석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나는 몹시 두려움에 싸인 채 교회에 들어섰습니다. 사람들이 각자 자기 반으로 갈 때 나는 누구인가 자기 소개를 하고 나에게 어디로 갈 것인지 가르쳐 주었으면 하고 바랐습니다. 나는 내가 누구에겐가 무슨 말이든 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으나, 혀가 움직이지 않았었습니다. 사람들은 친구들과 짝이 되어 지나쳐 갔습니다. 그 중에는 나를 보고 미소짓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얼마 안되어 문은 닫히고 홀은 텅비어 있었습니다. 실망하여 울면서, 나는 몸을 돌이켜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날 밤 나는 내가 말씀드릴 수 있는 단 한 분, 하나님 아버지에게 향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나는 어제까지 활동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나는 낯선 와드에 가기가 두렵습니다. 나는 혼자서 할 수가 없습니다.’

“이튿날 아침, 조금 망설이는 듯이 보이는 낯선 사람에게 문을 열어 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는 리버 길맨이라고 합니다. 나는 내가 왜 이곳에 오게 되었는지 확실치 않 수 없으나, 이곳에 들러서 자매님이 나와 함께 상호부조회에 가는 것이 어떤지 알아보아야겠다는 강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나는 눈물과 함께 미소를 띠며, 그녀를 안으로 불러들였습니다.”

쇼 자매의 간증은 내 자신을 다시 한번 살펴보게 했다. 교회에 새로 온 사람들을 나는 얼마나 많이 보았던가, 그리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이유만으로, 그들 곁에 다가가 단지 “안녕하세요.”하며 미소짓고 지나치지 않았는가?

다시는 그런 일이 없으리라! *

엘레인 본은 스포케인(워싱턴주) 제9와드에 살고 있다.



예수께 나아오라

목적 : 우리가 스스로 그리스도께 나아오도록 도와 주며 교회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일함으로써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하도록 도와 준다.

주님은 “보라, 인간에게 불사불멸과 영생을 가져다 주는 일, 이것이 바로 나의 사업이요 영광이니라.”(모세서 1:39)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속죄를 통하여 우리가 영생을 물려받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에 대해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도 영생이 가능하도록 도울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주님은 자비로우십니다. 그는 우리가 그에게 나아 온다면 우리의 짐을 들어 올리시고 우리의 영혼을 순결케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하기를 주저하거나 두려워한다면, 복음의 축복이 과연 힘든 결혼 생활로 인한 상처를 낮게 하고, 재정적인 문제의 부담감이나 직장 또는 학교에서의 긴장감을 덜어 주고, 병이나 외로움이나 죄의 고통을 구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지의문을 품을 수도 있습니다.

참으로 구세주께서는 우리의 짐을 덜도록 도와 주실 수 있습니다. 어느 자매는 밤낮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드리며, 괴로운 문제를 도와 주시기를 간구한 때의 일을 말해 줍니다. 그녀는 결국 속죄의 필요성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구세주의 도움이 없었다면, 나는 사실상 실수를 벗어 버리지 못하고 계속 발전해 나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녀는 구세주의 사랑의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나는 나의 전 인생을 통해 구세주께서 지켜 보고 계심을 느끼며 과거에 일어났던 모든 일과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이, 그것이 즐거운 일이든 고통스런 일이든 내가 그것을 신앙으로 받아들인다면 결국은 내게 선한 일이 될 수 있으리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물밀듯 밀려오는 파스함과 평안과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앤사인, 1977년 9월호, 50~51페이지)

우리가 신앙을 갖고 그에게 나아올 때 주님께서 도와 주실 수 없는 문제는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힘과 사랑을 느낄 때, 우리는 우리의 형제와 자매들을 강화시키고 축복하며 영혼을 그에게 데려 오기를 원하게 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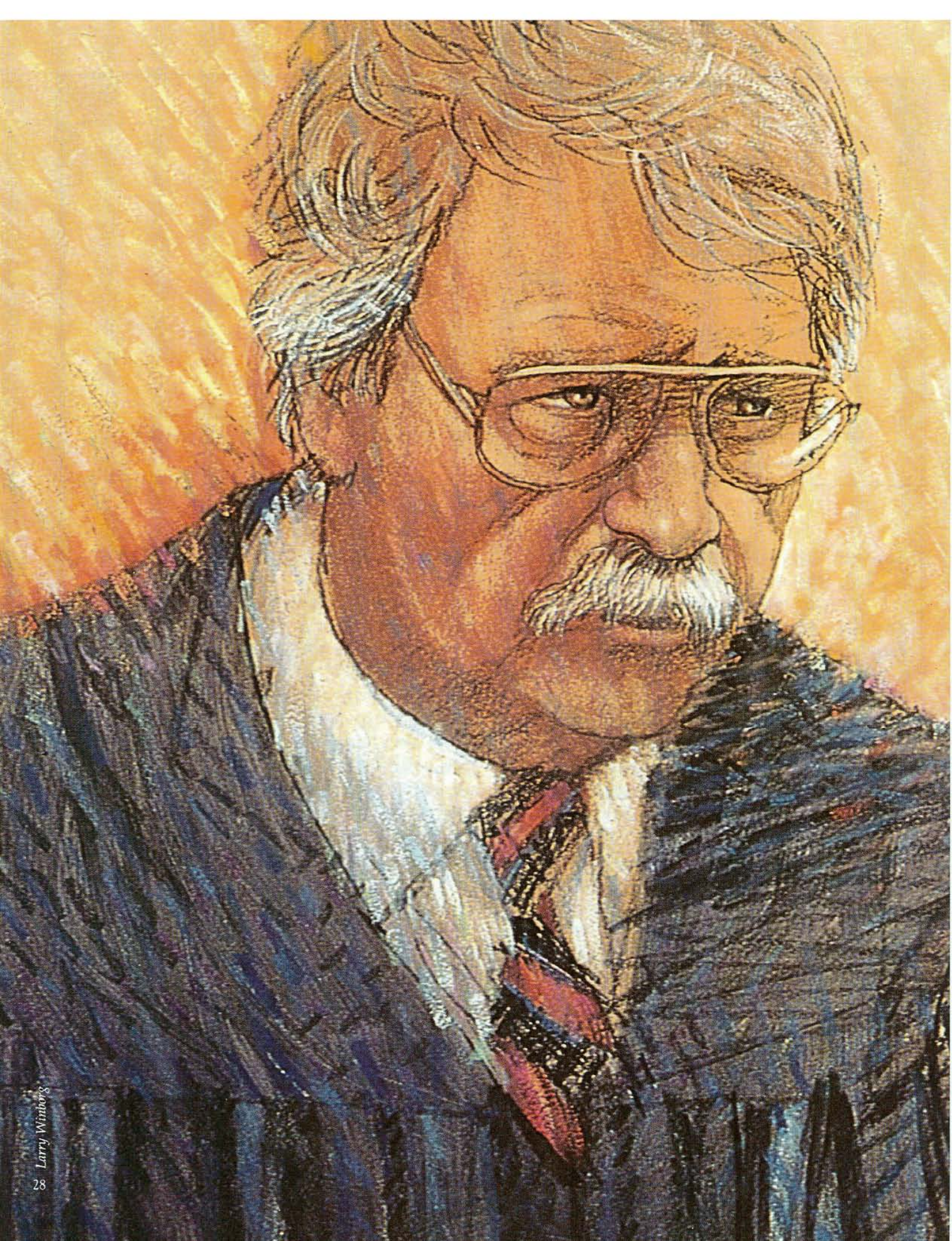
우리는 교회의 사명에 포함된 세 분야에 집중함으로써 이 사업을 도울 수 있습니다. 에즈라 태프트 벤슨 대관장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교회의 세 가지 사명을 완수해야 할 거룩한 책임을 지니고 있는데, 첫째는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르치는 것이며, 둘째는 어디에 있는지 교회 회원을 강화시키는 것이며, 세째는 죽은 자를 위한 구원의 사업을 증진시켜 나가는 것입니다.”(성도의 빛, 1986년 7월호, 84페이지)

벤슨 대관장은 우리가 속죄를 받아들이고,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섬길 때, 우리는 주께서 “인간에게 불사불멸과 영생을 가져다”(모세서 1:39) 주시는 일을 도울 수 있습니다.*

방문 교사를 위한 제언

1. 교리와 성약 18편 10~16절을 읽고 이 구절이 우리에게 대한 주님의 사랑과 우리가 우리의 형제 자매들에게 가져야 할 사랑에 대하여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토론한다.
2. 여러분이나 방문받는 자매가 복음과 속죄가 어떻게 생활을 축복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예를 나눌 수도 있다. 여러분이 방문하는 자매에게 문제점을 도와 주시기를 구세주께 간청할 것을 권한다.

(관련 자료를 얻기 위해 가정의 밤 자료집, 36~51, 109~15, 208~10페이지를 참조한다.)





지식의 은사

에프 버튼 하워드 장로
칠십인 제일 정원회

“버트, 어떤 바보라도
옳은 일을 할 수는
있다네. 어려운 것은
옳은 것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야.”

우리가 일상 생활에서 매일
당면하는 수없는 십자로에서 무엇을
할 것인지를 선택하거나 아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선택할 것이
똑같이 훌륭하게 보일 때는 특히
그렇습니다.

법과 대학을 졸업한 후에, 나는
운이 좋게도 유타 고등 법원에서
서기 직책을 갖게 되었습니다. 나는
법원이 어떻게 돌아 가는지를
배웠으며 판사들을 개인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반대편에 대한 법관들의
설득력있는 논의를 듣고는 처음에는
이쪽 편에 끌리다가 다음에는 다른
편에 끌렸던 일이 지금도 분명히
기억됩니다.

몇 년 뒤에, 법원을 떠난 후에,
내가 잘 알던 법관을 우연히
만났습니다. 우리는 법정 운영에
따르는 행정적인 어려움에 대하여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재판장인 내
친구는 지쳐 있었습니다. 몇 달만
지나면 그는 정년 퇴직하여 재판정의
모든 분쟁과 논쟁을 다른 사람들에게
물려주게 됩니다. 그는 은퇴하는
일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했던 것을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인간은 오로지 훌륭한 대업에 힘써 노력하며
자신의 자유의사로서 많은 일을 행하며
많은 의를 이룩해야 하느니라.”**

나타냈습니다.

“내가 은퇴한다면 자네는 어떻게 생각하겠나?”하고 그가 물었습니다.

그가 범정의 무거운 책임에서 왜 벗어나기를 원하는지 이해할 수 있었으나, 나는 “재판장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법정에서 항상 옳은 일을 하려 노력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위안이 되는 일인지 모르실 거예요.”

놀랍게도, 그는 화를 냈습니다. 그는 음성을 높이며 말했습니다. “버트, 어떤 바보라도 옳은 일을 할 수는 있다네. 어려운 것은 옳은 것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야.”

그 선배는 판사로서 가장 큰 관심사를 그렇게 표현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이 자신의 행위에 법을 적용시키는 것은 아니나, 일단 법이 결정되고 나면, 그렇게 하기는 어렵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보다 더 힘든 것은 법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결정해야 하는 것과, 머리 좋은 법관들이 제기한 경쟁적이며, 호감을 주며, 이유가 타당한 대안 사이에서 결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에게 보다 힘든 것은 두 가지 제안 중에서 어느 것이 옳은가를 결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선택하기 어려운 것

우리의 생도 그와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상 생활에서 매일 당면하는 수없는 십자로부터 무엇을 할 것인지를 선택하거나 아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선택할 것이 똑같이 훌륭하게 보일 때는 특히 그렇습니다.

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여러 달 동안 일자리를 찾아 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차를 사기 위해서 돈을 빌렸는데, 직장을 얻지 못하면, 회사에서 곧 차를 차압할 것입니다. 비가 내리는 십일월 이른 아침에, 이제까지의 것보다 가장 장래성이 있는 직장에 면접을 하러 가는 길이라고 합시다. 그런데 시간이 늦은데다, 연료 계기판의 눈금을 보니 운이 좋으면 가까스로 그곳에 도착할

정도였습니다.

교통 신호에 걸려 차속도를 줄이고 보니 친구가 비를 맞고 버스 정거장에 서 있었습니다. 그 친구를 태워 주면 더 늦을 것이 분명합니다. 좀더 빨리 몰아가지 않으면 약속 시간까지 대어갈 수 없을 것이지만, 속도 위반을 한다면 운전 면허증을 뺏기게 될 것입니다.

분명히,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각 환경을 별도로 떼어 생각한다면, 우리는 각자 할 바를 알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은 법과 속도를 위반해서는 안됩니다. 연료를 채워 넣고, 친구를 도와 주어야 합니다. 직장은 경제적인 안정과 행복에 극히 중요한 것이므로, 그것을 얻기 위해 명예롭게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멈춰 서든가, 말든가 해야겠지요. 속도를 내든가, 앉든가 하겠지요. 법을 위반한다면 문제가 되겠습니까? 직장을 잡는다면 문제가 되겠습니까? 운전 면허증을 뺏긴다면 문제가 되겠습니까? 친구를 태워 주지 못한다면 중요한 일이겠습니까? 휘발유가 없이 달리는 것이나 너무 속도를 내어 달리는 것에 대해 감추어진 보이지 않는 결과가 있겠습니까? 영원한 결과도 그와 같습니까?

이와 같은 예에서, 무엇을 할 것인지 아는 것이 가장 어려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릇된 선택을 하는 결과도 영원하며 되돌릴 수 없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죄에 너무 가깝게 다가 서는 것, 그릇된 장소에 서는 것, 또는 아예 서지 않는 것, 도덕률 또는 국법에 순종하는 것 또는 무시하는 것—이러한 것들은 우리 존재의 과정에 영원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올바른 과정을 찾습니까? 그것을 찾았다면, 어떻게 그것을 지켜 나가겠습니까?

복음 생활의 과제

교통이 그다지 복잡하지 않고 도로 표시가 되어 있는

**“우리가 자유롭게 선택한 결과 대로
우리 마음이 있는 곳을 찾아 보게 함으로써,
주님은 우리가 실제로 누구이며
무엇인가를 알도록 도와 주십니다.”**

곳에서는, 끈고 좁은 길에 머물러 있는 것이 상당히 쉽습니다. 그러나 길을 따라 가다 보면, 우리는 각자의 자유의지를 행사하는 다른 사람들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더라도, 우리 행동과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그들의 요구와 기대를 찾게 됩니다. 친구들이 “이리 와, 괜찮아, 모두 다 하는데.” 또는 “아무도 모를꺼야.”하고 말할 때, 시험이 오는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질문에 미리 대답을 준비하기란 힘든 일이며, 우리 앞에 놓인 선택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적용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복음 생활의 어려움은 우리 자신이 선택하는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완전히 제어하지 못하는 사태로 인한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선택하는 많은 것은 새로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선택이 되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각자 완전의 원리를 실행하려 애쓰면서 각자 자신의 길을 찾아 걸어가야 합니다. 경전이 많은 도움을 제시해 주며 다른 사람의 경험에서 유익을 얻을 수 있을지라도 인생은 우리가 해야 할 것과 하지 않아야 할 것을 혼자서 결정해야 하는 외로운 순간으로 가득 차 있음은 사실입니다.

물론, 주님은 이러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며, 이렇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은 나도 확신합니다. 예를 들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범사에 일일이 명령해야 함은 합당하지 아니하나니, 무릇 매사를 강요당하여 행하는 자는 게으른 자요, 현명하지 못한 종이라. 따라서 아무 상도 받지 못하느니라.

“진실로 내가 이르로니, 인간은 오로지 훌륭한 대업에 힘써 노력하며 자신의 자유의사로서 많은 일을 행하며 많은 의를 이룩해야 하느니라.

“이는 인간에게 능력이 있고 자유의지가 있음이니, 사람이 선을 행하면 결코 자기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교성 58 : 26~28)

다시 말해서, 이 말은 우리가 자신의 생활을 상당히

다스린다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가 명을 받지 않은 곳에서는,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한 대리인이 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원하던 원하지 않든지, 이러한 면에서 하늘로부터 통제받거나 명령받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우리는 시험받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

“내가 너희에게 계명을 주노니, 너희는 악을 버리고 모든 선을 굳게 붙들지어다. 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라.

“하나님께서서는 충실한 자에게는 규칙에 규칙을, 교훈에 교훈을 더하여 주실 것이요, 나도 너희를 시험하여 이로써 너희를 중험하리라.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이미 나의 마음에 정하였음이니, 곧 나는 모든 일에 너희를 시험하여 죽음에 이르기까지 나의 성약을 지키려 하는지를 알아 보아 너희가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하노라.

“만일 너희가 나의 성약을 지키지 아니하면 너희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느니라.”(교성 98 : 11~12, 14~15)

무엇이 옳은가를 알기가 어려움

지상 생활의 시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양심적인 선택을 하기를 요구합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는 과연 누구이며, 우리가 진실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결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이러한 면 즉, 아무런 구체적인 권고나 계명이 주어지지 않은 곳, 무엇을 할 것인지 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져 있지 않은 곳입니다. 바로 “어려운 것은 옳은 것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다”라고 고등 법원에 있는 내 친구가 말한 이 면입니다.

우리의 일생에서 우리는 의무나 임무, 그리고 다소간 매력적인 대안 사이에서 선택하는 것이 요구될 때가 있습니다. 텔레비전을 시청해야 하는가 아니면 방문 교육을 가야 하는가?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야 하는가 아니면



니파이인들은 구세주와 함께 지낸 후 그들의 생활에 거룩한 중재하심이 필요함을 깨달았습니다.

친구들과 보내야 하는가? 경전을 읽어야 하는가 소설을 읽어야 하는가? 자녀들을 집에 남겨 둘 것인가 아니면 데려가는가? 빗을 져야 할까 아니면 없는 대로 지내야 할까? 이러한 선택을 할 때, 다른 것은 제외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참된 시험은 있을 수 없습니다. 구원의 계획을 만드신 분이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자유롭게 선택한 결과대로 우리 마음이 있는 곳을 찾아보게 함으로써, 주님은 우리가 실제로 누구이며 무엇인가를 알도록 도와 주십니다.

우리는 두 가지 좋은 것 사이에서 선택할 필요가 있을 때가 많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역설의 하나입니다. 예를 들면, 특별한 부름에 보낸 시간의 양과 인간이 할 수 있는 선의 양 사이에는 직접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감독은 불쌍한 회원을 방문함으로써 많은 선을 행합니다. 그는 열 명의 가난한 회원을 방문하여 열 배의 선을 행합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을 그는 방문하는 데 보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경전을 공부하고 상고함으로써 주님께 가까이 나아갑니다. 좀더 열심히 공부하고 더욱 깊이있게 상고함으로써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많이 공부해야 하겠습니까? 좋은 아버지는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더 좋은 아버지는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며 아내와 정규적으로 일주일에 한번씩 저녁에 외출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어디에 선을 그어야 할까요? 충분하고, 너무 많다 할 때는 언제일까요? 우리가 충분히 적극적인지, 충분히 다른 사람을 섬기는지, 가정을 충분히 사랑하는지... 균형을 다시 조정할 필요가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선하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어떤 일에서나 중용을 찾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 누구든 화를 낼 수 있으며 ...돈을 주거나 쓰기는 쉬운 일이다. 그러나 바로 그 사람에게, 알맞은 정도로, 제 시간에, 올바른 동기에서, 올바른 방법으로 이러한 일을 행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며, 쉬운 일도 아니다. 그러므로, 선함은

희귀하고 장하고 고상한 것이다.”(“인간과 인간 : 사회적 철학자”, 세계 대 사상가, 11권, 삭스 커민스. 로버트 엔 린스코트, 뉴욕 : 랜덤하우스, 1947년, 352a페이지.)

남자가 매일 저녁을 아내와 함께 집에서 보낸다면 더 좋은 남편이 될 수 있었습니까? 자녀를 갖지 않고 여가 시간을 모두 아내에게 바칠 수 있다면 더 좋은 남편이 될 수 있었습니까? 대답은 분명 아니라는 것입니다. 남편이든, 아내든, 자녀든 또는 교회든...다른 사람의 시간을 완전히 다 차지하겠다고 할 사람은 없습니다. 부모의 완전한 관심속에 생활한 자녀는 그들에 가리우고 의존적이 될 것입니다. 임금을 받는 감독이 있는 교회는 돈을 받는 성직자를 갖게 되어, 하나님의 모든 자녀를 온전케 도와 주기 위해 계획된 거룩한 조직이 아니라 그 자체가 목적이 될 것입니다.

바람직한 균형

적절한 균형은 교회 회원 각자의 특수한 필요 사항과 능력에 따라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시간을 가정, 교회, 직장 및 자아의 훌륭한 대업에 바치는 것이 부족한 곳에서는, 우리의 창조주께서 우리에게 부과하신 시간 제약으로 인해 적절한 균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이라는 상속물을 비난하는 실수를 저지르지 않도록 하십시오. 오히려 우리가 받은 시간으로 그가 우리에게 시키실 일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도록 하십시오.

인생을 살아가는 데에는 우리가 져야 할 어떤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은 서로 배타적인 것은 아니며, 또한 그래서 안됩니다. 어느 것이나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버지가 되기 위해, 상호부조회 회장, 판매원, 학생이 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립니다. 불가피하게 갈등이 있게 됩니다. 한 영역에서 훌륭하게 수행하는 비결은 반드시 다른 것을 희생시키는 것만은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가 시온에서 편히 있기를 의도하지 않으셨습니다. (니파이서 28 : 24) 주님은 모든 것이 “지혜와 순리”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너희가 반드시 주시리라 믿으며
무엇이든지 의로운 것을
아버지께 나의 이름으로 구하면
보라 너희에게 주시리라.”**

(니파이삼서 18 : 19~20)

하셨습니다. (모사이아서 4 : 27)

적절한 균형은 우리가 다른 길은 모두 제쳐 놓고 한 길만을 취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필요한 대로 여러 길로 가되, 해야 하는 것 이상으로 더 많이도, 더 멀리도 가지 않아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걸어 가기를 기대하시는 다른 길로 나아가는 속도로 늦추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럴진대, 리차드 엘 이반스 장로가 말씀한 대로, 우리가 “있어야 할 때에,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하며” “일을 마쳐야 할 때에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은 지극히 중요한 것임을 알게 됩니다. 이는 우리는 우리가 선택한 것으로 심판받게 되고, 우리가 세운 균형대로 우리 자신이 되기 때문입니다.

“항상 기도하라”

이제, 말일성도인 우리는, 우리 생활에서 결정을 내릴 때나 균형을 잡고자 할 때 성공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주님의 겸손한 종으로서, 나는 우리가 할 수 있음을 간증드립니다.

구세주께서 니파이인들에게 성역을 베푸신 첫날이 끝나갈 즈음에, 그들에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너희는 나의 이름으로 항상 기도하라”

“너희가 반드시 주시리라 믿으며 무엇이든지 의로운 것을 아버지께 나의 이름으로 구하면 보라 너희에게 주시리라.” (니파이삼서 18 : 19~20)

나는 이것을 세상의 기록된 역사상 가장 위대한 가르침의 순간이었을 것으로 자주 생각해 왔습니다. 니파이인들은 그 직전에 그들 도시의 멸망과 사랑하는 사람들의 사망과 가족의 헤어짐, 가정과 세상 재물의 손실을 경험했습니다. 그들은 고통과 공포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삼일간의 완전한 암흑도 겪었습니다. 지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그들은 많이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중 그들은 하늘에서 한 음성을 들었으며 인자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었고, 모든 말씀은 그들의 마음속에 영구히 새겨졌을 것입니다. 이러한 여건하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에게 그들이 아버지께 구하는 의로운 것은 무엇이냐 그들에게 주어질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서 떠나신 후 하늘에 오르신 것을 기억했습니다. 경전은 그들이 흠어졌다고 기록하고 있으나, 그들이 보고 들은 것은 아직 어둠이 가시지도 않은 사이에 백성들간에 퍼져 나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밤잠도 자지 않고, 이튿날 예수께서 나오실 장소로 사람들을 데려 나오려 애썼습니다.

이튿날이 되어, 백성들을 인도하도록 선택된 십이사도들은 전날 그들이 가르침받은 대로 백성들에게 무릎꿇고 기도하게 했습니다. 한 마음이 되어, 그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드렸습니다. 이 약속을 기억하면서, 그들은 그들이 가장 바랐던 것을 간구했습니다. 그들이 간구할 수 있었던 그 모든 것...그들 가정에 건강을 회복하는 것, 사랑하는 사람을 다시 만나는 것, 병든 자와 다친 자를 고쳐 주는 것이나 그들의 지도자와 적에 대한 것 중에서 그들이 간구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경전은 간단히 말하고 있습니다. “성신이 저들에게 임하기를 기도하였더라.” (니파이삼서 19 : 9)

니파이인들은 니파이가 성신의 역할과 목적을 설명하였을 때 그의 가르침을 마음속에 확실히 새겨 두었던 것입니다.

“이제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너희가 이 곧고 좁은 길에 들어서기만 하면(침례를 받아 교회에 들어와 죄 사함과 성신의 은사를 받는 것), 만사가 다 행하여진 것이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는 온전한 희망의 밝은 빛을 품고, 하나님과 만인에 대한 사랑을 지니고, 그리스도를 믿는 굳건함으로 힘차게 나아가야 하느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쁘게 지키며 끝까지 참을진대, 보라 아버지께서 이르시어 너희가 영생을 얻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런 다음 가장 중요한 말씀을 덧붙이셨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거듭 말하거니와, 너희가 주의 길에 임하여 성신을 받으면 성신은 너희가 행하여야 할 모두를 너희에게 보여 주시리니.” (니파이삼서 31 : 19, 32 : 5)

그렇다면, 니파이인들이 다른 무엇보다도 성신을

**우리가 기도하고,
신앙을 행사하며, 사랑하며,
순종하고, 우리 영의 장막을 깨끗하게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놀라운 성신의
은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원했다는데 이상할 것이 있습니까? 성신이 없다면 그리고 그들이 무슨 일을 해야 하든지 모든 것을 아는 능력이 없다면, 하나님 아버지에게 돌아갈 희망이나, 그들을 행복과 영생으로 인도할 올바른 선택을 성공적으로 할 희망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 귀중한 은사가 성신이라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니파이인들은 구세주와 함께 지낸 후 그들의 시험에 대한 것을 현재의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이해했습니다. 그들은 본향으로 가는 길을 찾는 데 도움을 주시는 거룩한 중재하심이 그들의 생활에 필요함을 깨달았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마련해 주실 장소

교회에서 성신의 은사에 대한 것은 수없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침례받은 사람은 누구나 이 은사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당하다면, 집단적으로나 개별적으로, 그것은 우리를 지상의 다른 사람들과 차이가 나게 해줍니다.

우리가 함당하다면, 또한 우리가 마음속의 느낌에 나타난 대로 영의 인도하심에 따랐다면, 이제까지 되어 온 것이 가장 좋은 것임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시련이나 어려움이 따를 수는 있겠지만, 우리는 주께서 우리에게 있게 하시고자 하는 곳에 우리가 있음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알고, 대개의 경우 우리는 주님의 뜻을 행했음을 아는 것은 형언할 수 없는 평화와 기쁨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 지상의 어떠한 사람도 이 축복을 받을 수 없는데, 이는 성신의 동반하심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나는 보혜사의 속삭임에 따라 행동하기에 앞서 기도하고 명상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나도 니파이와 같이,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미처 알아 차리기도 전에 영에 이끌려”(니파이일서 4:6) 나아 간 것을 알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은 요셉과 올리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말하며 기록할 것은 그때 마다 네게 주어질 것이요.”(교성 24:6)

토마스 비 마쉬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보내는 곳은 어디나 가라. 네가 행해야 할 일과 가야할 곳을

보혜사에게 알려 주시리라.”(교성 31:11)

무슨 말을 할까! 무엇을 쓸까! 어디로 갈까! 무엇을 할까! 그러한 인도하심이 인생의 몇가지 문제에 대해서만 이따금 주어진다면, 가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사츄셋츠, 살렘에서 예언자 요셉에게 주어진 더 큰 약속은 그가 “주로” 머물러야 할 장소는 영의 평강과 권능으로 계시하여 주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교성 111:8 참조) 세명의 증인은 성신은 “인간의 자녀에게 필요한 것은 모두”(교성 18:18) 나타내시리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 중요성은 참으로 큰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매리온 지름니 부대관장이 “성신을 받은 중요성은 표현할 수 없을 정도”라고 말씀하신 이유를 쉽게 이해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신이 나타내는 “온갖 진리”(모로나이서 10:5)를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성신의 하시는 일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 예언자 요셉 스미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자기 성령으로써, 참으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성신의 은사로써 창세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아직 나타내시지 아니하신 지식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이는 우리 선조가 마지막 때에 나타내 주시기를 간절한 소망으로 기다린 것이니, 저희 완전한 영광을 위하여 보존된 그대로를 천사들을 시켜 저희 마음에 보여 주신 것이니라.”(교성 121:26~27)

은사는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그것으로 무엇을 만드느냐 하는 것은 우리에게 달린 것입니다. 우리가 권고에 귀기울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신앙을 행사하며, 사랑하며, 순종하고, 우리 영의 장막을 깨끗하게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놀라운 은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현명한 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이 되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행동에 옮기는 데 적용할 수 있는 생활을 할 수 있기 바랍니다.*

브리검 영 대학 노변의 밤 모임에서 행한 말씀에서 발췌.



그들의 질문에 대답할 수 없었을 때

크리스티 윌리엄즈

복음을 다시 알게 되었을 때, 나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 가까운 관계를 맺게 되기를 열망했다.

십이년 전 복잡한 쇼핑 센터를 걸어가고 있을 때 두 명의 젊은 여성이 나에게 와서 함께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고 물었다. 나는 “물론이지요.”라고 대답했다.

그들은 “만일 부인께서 오늘 돌아가신다면 천국으로 가시겠습니까?”라고 물었다.

그들이 바로 성경을 펴고 신약에서 한 구절을 인용한 것을 보면 내가 놀란 것을 눈치챈 것이 틀림없다. 그들은 “천국에 가기 위하여 필요한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그 후에는 지금까지도 고통스러운 기억이 뒤따랐다. 나는 그들의 교리에 깜짝 놀랐으며 내 마음은 주일학교, 세미나리, 브리감 영 대학교에서 이수한 신약 클래스로 되돌아갔다. 그러나 나는 하늘 왕국에 들어가려면 단순히 신앙을 고백하는 이상의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성구를 단 하나밖에 인용할 수 없었다.

그 두 여성은 곧 첫번째 성구와 비슷한 것을 인용했다. 나는 말일성도로서 믿는 것 가운데 일부를 그들에게 말해 줄 수 있었으나 그 원리를 뒷받침해 주는 경전 구절을 인용할 수 없었다. 그들은 납득하지 못한 채 곧 나의 옆을 떠났다. 나는 그들이 다른 사람에게 급히 걸어가는 것을 바라 보았다.

일반적인 착각

스펜서 더블류 킴벌 대관장님은 이렇게 말씀했다.

“기억하고 있는 성구는 얼마 안되면서도 복음을 많이 알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내가 바로 그런 착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계속해서 “모든 사람이 언젠가 스스로 경전을 발견해야 하며, 또, 한번 발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다시, 그리고 또 다시 재발견 해야 한다”고 말씀했다. (성도의 빛 1985년 12월호, 4페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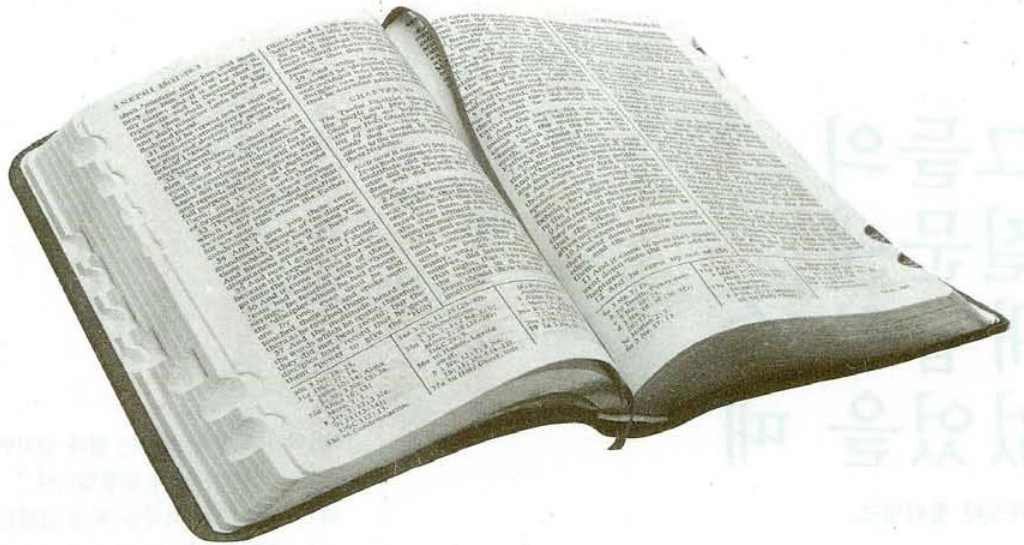
나는 이 경험으로 낙심하여 두 번 다시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있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나는 정기적으로 복음을 공부하는 시간을 따로 정해 놓고 다시 복음을 찾기 시작했다.

신약전서에 똑같은 방식이 여러 차례 반복된 것을 보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른다. 사람들은 그리스도에 대하여 알게 되면 회개하고 침수에 의한 침례로써 그들의 신앙을 나타내 보이고 안수에 의하여 성신을 받고 그 다음으로는 순종함으로써 계속해서 진보했다.

나는 하늘 왕국에 들어가기 위하여 무엇이 필요한가 하는 것을 나타내 주는 성구에 가장 관심이 많았다. 나는 이런 성구를 암기했으며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고전 6:9) 등과 같은 성구로 무장하고 쇼핑 센터에서 그 두 젊은 여인을 만날 준비를 갖춘 자신의 모습을 그려보았다.

보다 더 가까운 관계를 열망함

그러나 내가 예측하지 못했던 다른 일이 생기기 시작했다. 나는 자신의 품행과 태도를 내가 읽고 있는 진리와 비교하게 되었다. 나는 구세주의 모범과 사랑-요한 복음에 기록된 그가 아버지에게 드리는 기도, 그가 당신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 왔다고 선언하신 것을 읽고 크게 겸손해졌다. 나는 내 생활을 얼마나 많이 변화시켜야 하는가를 깨달았다. 나는 토론할 것을 상상하기 보다는 무릎꿇고 기도드리는 자신을 더 자주 깨닫게 되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좀 더 가까운 관계를 맺기를 열망하기 시작했다. 나는 다른 종류의 준비 즉 참으로 나를 영생으로 인도해 줄 수 있는 준비를 하기 시작했다.

구세주께서는 경전을 통하여 바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 그분은 우리에게 그의 뜻을 가르치신다. 나는 경전을 읽다가 요한복음 1장 12절부터 13절을 읽게 된 것을 기억하고 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신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라”

이것이 바로 내가 추구하고 있던 관계였다. 나는 내가 그런 권세를 받을 수 있기를, 하나님께로 거듭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렸다. 그 대답은 강한 느낌으로 왔으며 나는 그것을 일지에 기록하고 여러 번 깊이 생각했다. 우리는 계명대로 생활함으로써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 권세를 받는다.

경전을 공부하는 가운데 나도 한 젊은이가 주님에게 와서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마 19:16)라고 물은 것처럼 매일 그런 방식으로 경전에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과 16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경전은 “능히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해 줄 수 있다. 경전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도움이 필요하거나 마음이 어지러울 때

정규적으로 많이 읽으면 읽을 수록, 도움이 필요하거나 마음이 어지러울 때 경전을 더욱 찾아 보게 되었다. 한번은 어떤 중요한 약속을 깨뜨린 사람에게 극도로 화가 난 적이 있었다. 나는 며칠

동안 적개심에 불타서 보복할 것을 생각했다. 나는 아주 비참해졌다. 나는 용서하지 않는 것은 잘못이라는 것을 알았으나 어떻게 해야 그런 감정을 없앨 수 있을지 몰랐다. 마침내 번민하며 침실로 걸어가서 물문경을 집어 들었다. 나는 정말로 읽으려는 의도는 아니었으나 그냥 아무렇게나 책을 열었다. 물론서 3장 15절에 있는 주님의 말씀이 나를 향하여 튀어나오는 것 같았다. “복수는 나의 일이라”

이 순간, 모든 것을 영원한 관점에서 보게 되었다. 나는 나의 태도가 틀렸다는 것을 깨닫고 질책받고 겸손해졌다. 동시에 이 성구가 큰 위안이 되었다. 주님께서 내 감정을 알고 계셨던 것이다. 그가 관심을 갖고 계셨던 것이다. 그런 뒤 기도하고 나의 나쁜 감정을 쉽게 잊을 수 있게 되었다.

주님처럼 이해함

주님이 우리의 기도에 대하여 얼마나 자주 경전을 통하여 응답해 주시는지 모른다. 경전 말씀은 그분의 음성으로서 우리에게 우리가 맺은 성약과 우리에게 주어진 영광스러운 약속을 상기시켜 준다. 나는 교리와 성약과 값진 진주를 공부하기 시작하면서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서 받는 영감이 경전 말씀의 형태로 올 때가 흔히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예를 들어 한번은 둘째 아이의 임신 중일 때 한 유명한 과학자가 진행하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었다. 그 프로그램은 일부 벽지의 섬 문화에 서방 문명이 끼친 영향을 보여 주었다. 그 프로그램이 끝날 때 쯤 초점이 바뀌어, 화면은 온 세상의 복잡한 도시와 가난한 사람들을 보여 주었다. 그 과학자는 시청자들에게 그들이 자기 나라 정부를 설득하여 산아 제한 조치를 실시하게 하라고 호소했다. 그녀는 만일 인구 증가를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예레미야 29 : 13)

통제하지 않는다면 세계 재난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했다. 나는 마음이 몹시 어지러워졌다. 우리 부부는 또 한 명의 자녀를 세상으로 데려 오려고 하고 있었다. 나는 내가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는지 알게 해주시도록,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그분처럼 이해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주님에게 간구했다. 한동안 기도드렸을 때, 마침내 어떤 장벽을 넘어섰다는 느낌이 들었다. 작고 고요한 음성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말씀이 왔다. “너는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지리라 하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을 성취하는 것을 돕고 있다.”

나는 아브라함서 2장 11절을 펴고 주님의 말씀을 읽었다.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모든 권속이 복을 받으리니 복음의 축복, 구원의 축복 곧 영생의 축복을 얻으리라.”

아브라함서 3장 12절부터 14절 사이에서 주님께서서는 족장인 아브라함에게 별이 많은 하늘을 보여 주시면서 “나는 너를 번성케 하리니 너 이후에 태어나는 자손을 번성케 하여 이같이 되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계신다.

교리와 성약 132편 31~32절을 보게 되었을 때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에 관하여 말씀하신 것을 발견하고 굉장히 흥분했다. “이 약속은 또한 너의 것이니, 너희가 아브라함에게 속하였고... 이 율법으로써 나의 아버지의 사업이 계속되며 이로써 영광을 누리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가서 아브라함의 사업을 행하라. 나의 율법에 참여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은 우리 아버지의 모든 자녀를 위한 것이었다. 나는 침례받을 때 복음을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겠다고 성약을 맺은 것을 상기하게 되었다. 나는 나의 이웃 사람의 짐을 지겠다는 성약을 맺었다. 주님은 교리와 성약 104편 17~18절에서

이렇게 설명하신다.

“땅은 충만하고 충분하여 남는 것이 있나니, 참으로 내가 만물을 만들어 인간의 자녀들에게 이를 주어 자유 의지대로 행동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어느 사람이 내가 만든 것을 풍성하게 갖고 있으면서도 나의 복음의 율법에 따라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자기의 몫을 나누어 주지 아니하면 저는 악한 자들과 더불어 지옥에 떨어져 고통을 받으면서 눈을 들어 바라보리라.”

“네 자신을 흠없이 지키라”

나는 물론경 공부를 통하여 주님의 예언자들은 모두 우리가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 앞에 서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를 준비시키기 원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 나는 물론경 공부에 있어서 아침 열시가 될 때까지 물론경을 한 장도 읽지 않고 지나는 일이 없는 것이 습관이 되도록 노력했다.

니파이와 야곱, 베냐민왕과 엘마의 위대한 설교는 나에게 깊은 영향을 주었다. 나는 때때로 내 영혼의 고통을 느꼈다. 5장을 읽는 가운데 엘마에게 닥친 일은 주님 앞에 서는 것을 연습하는 것임이 분명해졌다. 엘마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다.

“너희는 하나님 앞에서 죄 짓지 않고 살아 왔느냐? 바로 지금 너희가 죽게 된다면 너희가 더할 나위 없이 겸손했노라고 말할 수 있으며, 너희의 옷이 백성을 죄에서 구하려고 오실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희게 되었노라고 할 수 있겠느냐?”(엘마서 5 : 27)

나는 모사이야의 아들들의 경험으로부터 특별한 영향을 받았다. 그들의 생활을 구세주에게로 돌리고 복음을 그들의 레이맨인 형제들에게 전하려고 했을 때 그들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을 얻었는지 모른다. 나는 내 평생에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려는 나의 열망에 관하여 금식하고 인도받을 수 있도록 기도드렸다. 잊을 수 없는 어느 날 우리 아파트 단지에서 일하는 관리인이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다고 말했다. 그리고 한 이웃 사람이 우리집 문을 두드리며 “나는 부인의 가족이 일요일에 교회로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느 교회에 가십니까?”라고 말했다.

물론경은 나에게 주님께서 나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되고자 하는 큰 열망을 심어 주었다. 어느 날 밤 우리의 새로 태어난 딸 때문에 잠이 깨었다. 아기는 젖을 먹고 곧 잠이 들었다. 그러나 나는 고요한 밤에 잠이 깨어 있었다. 나는 내 생활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변화에 대해서 또 아직까지 변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많은 것들에 대해서 생각했다. 내 생각은 하나님에게 끌려 갔으며 나는 이렇게 외쳤던 레이맨왕의 말을 기억하며 기도했다.

“하나님이시여, ...저에게 당신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을 알아...저의 모든 죄를 버리겠나이다.”(엘마서 22:18)

주님께서는 나의 약점을 하나씩 보여 주셨다. 나는 아침 이른 시간에 감미로운 확신을 받아서 그것을 일지에 기록했으며 여러

번 그것에 대해서 생각했다. “나는 너의 아버지이다. 너의 아버지이다!”

이제 나는 그 쇼펍 센터에서 몇 년 전에 겪었던 그 경험에 대해서 좀 더 다른 견해를 갖고 있다. 나는 그때 경전을 상고하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가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었음을 기쁘게 생각한다. 그 젊은 여인들에게 지식과 간증을 나누어 줄 준비가 되어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또 얼마나 더 많이 공부하고 복음 원리대로 생활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것을 깨닫고 있다.

이년 전 나의 목표는 내 평생 처음으로 구약전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는 것이었다. 나는 예레미야 29장 13절에서 주님의 이러한 훌륭한 약속을 발견하게 되리라고는 거의 상상도 하지 못했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그렇게 찾는 일에는 경전이 참으로 많이 연관되며 또한 그것은 영생으로 인도해 준다. *

크리스티 윌리엄즈와 그녀의 남편 브라이언은 련톤 와싱턴 노스 스테이크의 뉴포트와드에서 주일학교 복음 교리반 교사로 일하고 있다.

머리속 가득히 들어 있는 성구

성구를 암기하는 재미있는 방법

성 구를 암송함으로써 나의 영혼이 고양되고 내가 유혹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므로, 나의 자녀들이 곤경을 겪을 때 그들에게 힘이 되어 줄 성구를 배우도록 도와 주기를 원한다. 우리 가족이 효과를 본 재미있는 암송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성구를 짧은 구절로 나눈다. 각 구절을 큰 소리로 외우고, 끝에서부터 시작하여 처음으로 향해 나아간다. 예를 들면, 엘마서 37장 35절을 외울 때, 마지막 구절을 외운다. “계명지키기를 배우라.”를 여러 번 반복한다. 그런 다음 자녀들에게 반복하게 한다. 다음 구절도 똑같이 한다. “또한 젊을 때 하나님의 계명지키기를 배우라.” 자녀들이 마지막 두 구절을 배운 후에, 이 구절을 시작한다. “나의 아들이 네가 젊었을 때 명심하여 지혜를 배우라.” 그런 다음 그들에게 전체 구절을 반복하게 한다.

2. 성구를 종이에 써서, 그것을 낱말이나 구절로 잘라 낸다. 몇 번 그 구절을 말하고, 글을 읽을 수 있는 자녀들에게 잘라낸 성구를 한번씩 만들어 주고 누가 그것을 가장 빨리 제대로 맞출 수 있는지 본다.

3. 암송할 구절을 도표로 만든다. 그것을 여러 번 말한 다음, 몇 개의 낱말을 가린다. 구절을 큰 소리로 외우는데, 매번 낱말을

가리는 것을 늘려, 전체 도표가 다 가려질 때까지 한다. 또한 칠판에 구절을 쓰고 어린이들이 구절에 익숙해짐에 따라 낱말이나 구절을 지울 수도 있다.

4. 구절에 들어있는 말씀을 잘 알려진 합당한 곡조에 붙여 노래부른다.

5. 구절을 번갈아 읽기를 한다. 어린 아이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고 그들에게 교대로 낱말이나 구절을 말하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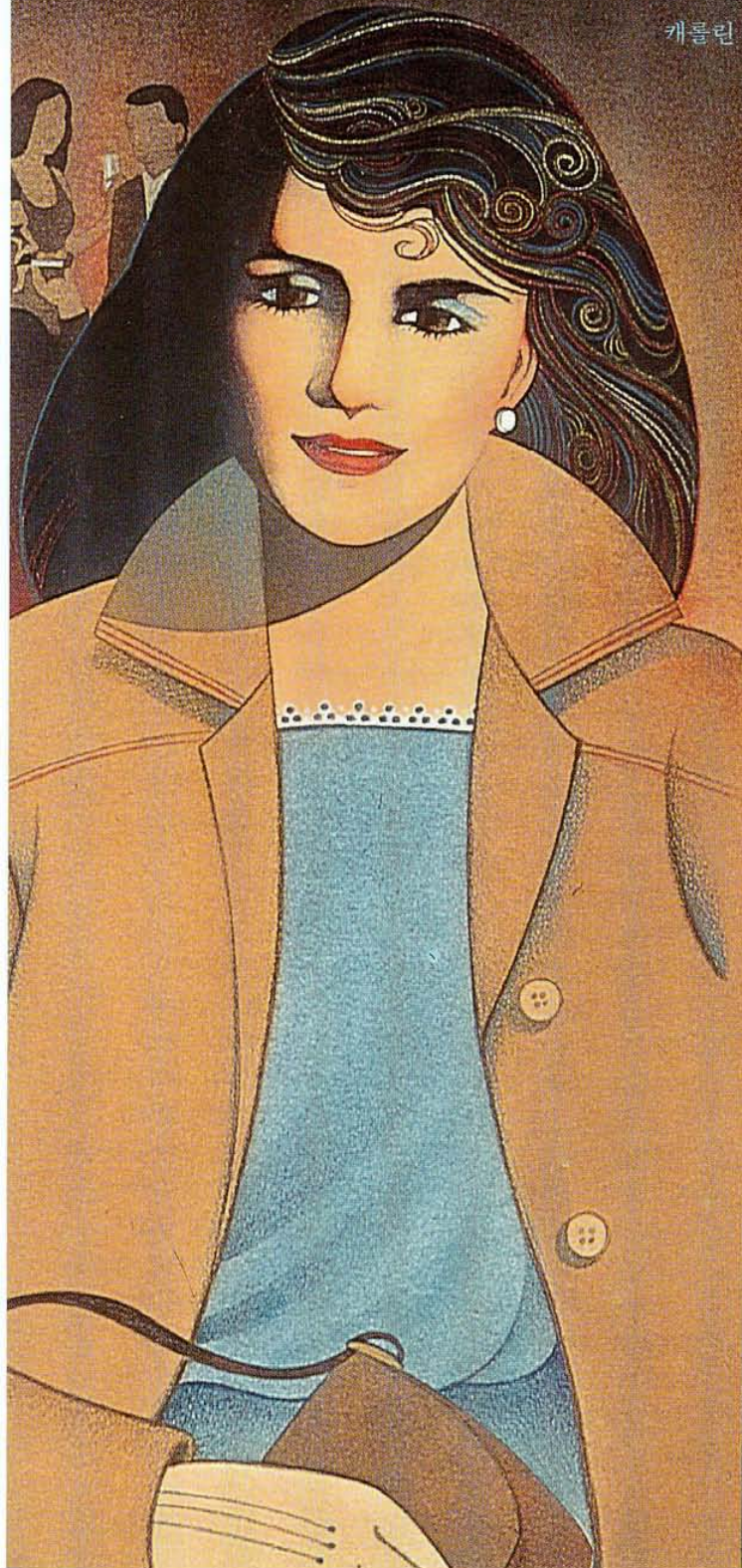
독창적으로 한다. 여러분의 가족에게 어떤 방법이 가장 잘 맞는지 알아보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해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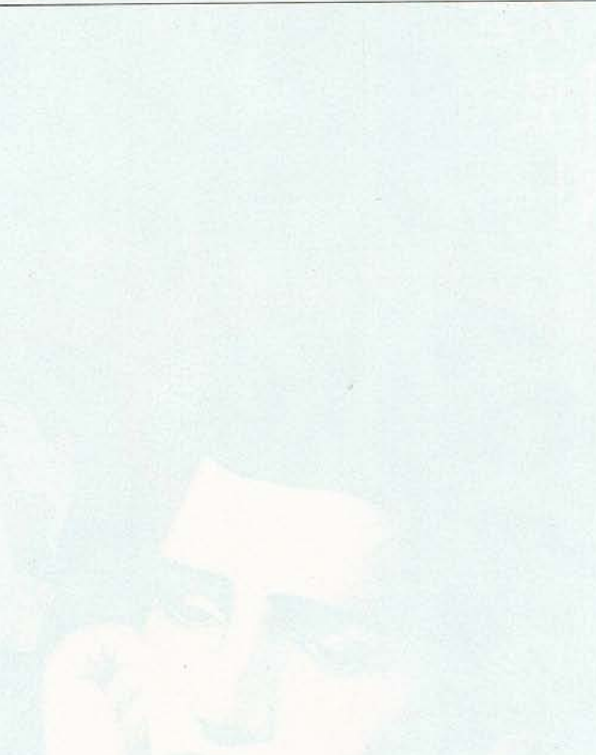
어린 자녀들은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린 나이에 성구를 잘 이해하고 암송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는 활동에 포함시킨다. 어려운 낱말과 구절을 설명한다. 자녀들이 힘들어 하는 것을 비난하지 말고 자주 칭찬해 준다.

자녀들이 경전을 사랑하도록 도와 주는 것은 부모가 자녀의 영원한 행복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큰 공헌중 하나가 될 수 있으니 이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한 바와 같다.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디모데후서 3:15) * 톰 로즈 유타주, 샌디

결심한 것을
지키기로
결정함

캐롤린 드브리스





끊임없이 유혹을 당하는 세상에서 때로는 결심을 지키기 어려울 수도 있다.


결심은 약속 또는 맹세하는 것이다. 결심은 주님이나 다른 사람 또는 자기 자신에게 할 수 있다. 결심을 지킨다는 것은 성실성에 대한 가장 확실한 표시이며 영적인 과정이나 현실적인 성공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끊임없는 유혹이 도사리고 있는 세상에서, 때로는 결심을 지키기 어려울 수도 있다. 어떻게 결심을 하며 어떻게 그것을 지켜야 할지 이해하는 것은 우리가 그러한 유혹을 물리치는 힘을 얻고 어린 아이들이나 성인들이 올바른 원리를 향해 나아가도록 인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한 가지 방법은 사태 발생 이전에 주어진 상황에서 반응하는 방법을 정해 놓는 것이다. 다음 두 가지 이야기를 생각해 보자.

사례 #1

마리아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큰 회사에서 비서로 일하기 시작한 젊은 여성이다. 그녀는 사무실 내의 고용인들 중에서 유일한 말일성도였다. 새해가 되기 오래 전부터, 사무실 내의 모든 사람은 연례 망년회 파티에 관해 말을 했다. 전통적으로 망년회날은 일찍 근무를 마치고 신나는 축하 파티가 밤늦게까지 계속됐다.

마리아는 그 파티가 실제로 열리기 오래 전부터 걱정이 되었다. 그녀는 모든 사람이 자신이 그들과 파티를 즐기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길 원치 않았지만, 이러한 종류의 축하 파티는 교회 표준에 맞지 않는 것이었다. 그녀는 12월 31일에 신병이 났음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았으나, 거짓말을 하는



것도 또한 자신의 표준에 맞지 않는 것이라고 결정했다. 그녀는 사무실을 닫을 시간이 되면 얼른 책상을 치우고 눈치채지 못하게 빠져 나가리라고 결정했다.

그러나 그 시간이 다가오자, 그녀가 자신의 계획을 따르기도 전에 직장 사람들이 모여 들기 시작했으며, 마리아도 어느 사이에 사무실 파티의 한 가운데 끼어 들게 되었다.

그녀는 두번째 계획을 세웠다. 한쪽 구석에서 있기로 한 것이다. 파티가 어느 정도 지나면, 아무도 모르게 살짝 빠져 나갈 것이다. 그러나, 얼마 안되어 한 무리의 직장 동료들이 그녀 주위로 몰려 들어, 놀려대며 추근댔다.

“한 잔만 마셔봐.”

“아무도 모를꺼야.”

“누구라도 술맛도 안 보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어.”

그녀는 거절을 하고 애원도 해 보았으나 소용이 없었다. 절망감이 들어 그녀는 “이걸 마셔버리고 나가버리자”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잔을 들었지만 마실 수가 없었다. 그녀는 여러 해 전에 그녀에게 지혜의 말씀을 가르쳐 준 초등학교 교사를 기억했다. 그 순간 그녀의 시련은 끝이 났다. 잔을 다른 사람에게 건네 주고,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다. “아니, 난 안 마시겠어. 한번도 마셔본 적이 없는데, 오늘부터 시작할 생각이 없어.” 무리를 헤치고 나간 마리아는 코트를 집어 들고 그 자리를 떠났다.

마리아가 미처 깨닫지 못한 사실이지만, 그녀는 오래 전에 초등학교 반에서 술을 마시지 않겠다는 결심을 했던 것이다. 그녀가 그러한 경우에 어떻게 처신할 것인가를 마음속에 미리 그려 놓았다면 그때에 얼마나 쉽게 보낼 수 있었을 것인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축복 가운데 결정의
자유가 있다. 우리에게는 우리
자신을 이겨내는 능력이
있으나, 자제하는 데는 결심이
필요하다.

그렇게 되면, 이미 결정은 내려진 것이므로, 우유 부단하게 있는
일은 없을 것이다.

사례 #2

두번째 이야기는 조안이라는 똑똑한 여고생에 관한 것이다.
조안은 친구들의 경탄의 대상이 되었다. 그녀는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어느 유명한 대학의 장학금을 받았다. 조안이 첫째의
성탄절에 집에 돌아왔을 때, 그녀의 말일성도 친구들은 그녀에
대하여 조금 걱정이 되었다. 같은 표준을 갖지 않은 많은
사람들 틈에서 어떻게 표준을 지켜나가는지 물었을 때, 그녀는
이렇게 대답했다. “전에는 교회에서 하지 말라고 가르쳤기
때문에 담배나 술을 하지 않는다고 설명해 주곤 했지. 그러나
그렇게 설명하는 데에도 지쳤어. 지금은 술잔은 받아 놓고
마시지는 않아. 술잔을 들고 걸어 다니다가 마지막에는 어디다
쏟아 버리는 거야.”

이 이야기의 종말은 쉽게 추측할 수 있다. 오래지 않아, 조안은
교회를 떠났다. 그녀는 압력을 받았을 때 어떻게 결정을 내릴
것인가를 미리 결정내리지 못하여, 매경험을 할 때마다 계속해서
결정을 내려야 했던 것이다. 불행하게도, 그녀 주위 사람들의
끊임없는 영향은 그녀의 새로운 환경의 압력과 더불어
그녀에게는 너무 컸던 것이었다.

일이 발생하기 전에 유혹에 반응하는 법을 실행하는 것은
방패로 막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것은 자신감의 형태로 보호해
준다. 그리고 압력을 받고서 결정을 내리는 고통을 덜어 준다.
의로운 결심은 여러 달이 걸리고 여러 해가 걸릴지라도 결정을

내릴 때에는 유일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대답이 된다. 우리는
의로운 것에 대한 결심이 서 있다면 유혹의 힘을 줄이게 된다.

어떠한 종류의 결심에서 이 개념은 작용하는가? 대답은 모든
것에 대해서이다! 특히 우리의 영원한 구원에 관계된
것—경전을 연구하고, 교회의 임무를 완수하며, 신권을 성실히
수행하고, 학업에 정직하며, 지혜의 말씀에 순종하고, 자선을
배풀며, 순결해지는 것 등이다. 특별한 상황에 대한 우리의
특별한 반응을 미리 결정하는 것은, 목적을 성취하는
것이라든가, 좀더 전문적으로 준비하는 것 또한 더 좋은 어머니와
아버지가 되도록 준비하는 것과 같이, 우리 생활의 기타 여러
면에서 도움이 될 수 있다.

자신에 대하여 어떤 결심을 하게 되면, 그것을 종이에 적어
그것을 특별한 친구 또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나누어 보는 것이
도움이 된다. 마음속으로 조용히 결심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진실되고 구속력이 있어야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겸손한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와 더불어 할 수 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축복 가운데 결정의
자유가 있다. 우리에게는 우리 자신을 이겨내는 능력이 있으나
자제하는 데는 결심이 필요하다. 결정의 순간이 오기 전에 결심을
하고 그러한 결심을 어떻게 지켜 나갈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우리가 끝까지 견디고 영생을 얻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니파이서서 31 : 14~16, 19~20 참조) *

시간을 내어 선교사로
 나간 대학 선수들중
 어느 누구에게든
 말해보면, 그들은
 여러분에게 같은 말을
 해줄 것이다.
 나가라!



Greg Gneiting



Kelly Grav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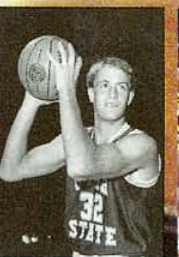
Jon Ludkins



Jon Hansen



Bob Capener



Reid Newey



Marty Haws



Dan Bell

선교사 부름에 따르는 어려움

제닛 토마스 와 리자 에이 존슨

말 일성도 젊은이들이 어느 곳에 살고 있고, 어떤 환경에 처해 있는지, 선교사 부름을 받아들이느냐 아니냐 하는 큰 결정을 해야 하는 것은 같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그 대답은 단순히 “예”라는 것이다.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으나, 그들은 주님을 섬기고 모든 합당한 젊은이는 선교 사업을 하라는 총관리 역원의 권고에 따르고자 하는 소망으로 인도되고 있다. 그러나 같은 소망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라도, 학업을 마치는 문제, 병역 문제, 직장 또는 이 기사에 나오는 젊은이들의 경우와 같이, 그들이 사랑하는 스포츠를 계속하는 등의 어려움을 겪게 되는 수가 있다. 스포츠라면 선교사 부름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는 사소한 이유로 보일 수도 있으나, 미국의 젊은이들에게 있어 스포츠나 운동 기량에서 뛰어난 능력을 갖추게 되면, 대학 장학금 및 직업으로 인도될 수도 있다. 여러분이 만나게 될 젊은 말일성도들은 선교사 부름을 받아들일 것인가 아닌가 또는 대학 농구를 계속할 것인가 아닌가를 결정해야 했다.

체육관 안의 공기는 운동화 고무창 냄새, 농구공 냄새 및 땀냄새로 텁텁하고 무거웠다. 한 구석에서, 젊은이들이 운동으로 몸을 풀고 있다. 그중 한 사람이 “파사메 라 펠로!”하고 외친다.

다른 선수들이 목소리를 합하여, “파사메 라 펠로타!”하고 복창한다.



“그게 무슨 뜻이냐, 켈리?”
 “공을 내게 패스하라” 켈리가 대답한다.
 “이번에는 이 말을 해 봐, ‘아 라 이즈퀴에르다!’ ‘왼쪽으로’라는 뜻이야.”
 “아 라 이즈퀴에르다!” 일동이 대답한다.
 농구 선수들이 게임을 준비하는 사이에 이와 같이 스페인어 연습은 계속된다. 이것은 뉴멕시코 대학의 로보스 팀이 브리감 영 대학 대항 게임을 준비하면서 있었던 일이었다. 로보스 팀은 칠레 산티아고 선교부에서 봉사한 팀 선수, 켈리 그레이브스에게서 스페인어 속성 과정을 밟고 있었다. 브리감 영 대학 선수들 중에는 스페인어를 말하는 선교부에서 봉사한 선수들이 많아, 경기 도중에 서로 스페인어를 말해 상대방 팀을 혼동시키고 올려대는 수가 있었다.

“비와이유 선수들도 나는 속일 수 없습니다.”라고 켈리가 말했다. “나도 역시 스페인어를 말하는 선교부에서 봉사했거든요. 연습하는 동안, 우리는 몇 가지 스페인어를 복습해 왔습니다.

유타 대학 선수인, 키드 채프맨은 독일 프랑크푸르트 선교부의 귀환 선교사이다. 선교 사업을 하면서 키드는 사물에 대한 영원한 관점을 지니는 것을 배웠다. “선교 사업을 하러 나가기 전에는 농구가 나의 전 인생이었습니다. 이제 나는 합당하게 머물러 있고 단지 다음 게임 보다 더욱 영원한 것을 보는 것과 같이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압니다.”



Keith Chapman Mike Smith Brian Taylor Mike Johnson Brent Stevenson Dan Sampson Danny Conway Jim Usevitch

유타주 로이의 레이드 뉴이는 여섯 살 때부터 농구 선수가 되는 꿈을 꾸어 왔다. 그는 소년 시절과 십대에 지역 사회 및 교회 팀에서 활약했다. 그는 텔레비전에서 게임을 보고 아버지와 함께 게임을 했다. 농구는 그가 일생 동안 하기를 원했던 것이었다.

유타 주립 대학에 들어간 첫 해에, 레이드는 대학 일학년생으로 구성된 국가 대표팀으로 선발되는 영광을 얻었다. 그는 대학 농구에서 상당한 활약을 보이고 있었다. 후년에 그는 주전 선수의 한 사람이 될 것이었다. 그러나 그밖에 그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있었다. “나는 대학 일학년 동안 내내 물문경을 읽었어요.”하고 레이드가 말했다. “그리고 나는 그에 대해 큰 간증을 얻었습니다. 나는 그책을 사랑했습니다. 나는 물문경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연습을 하고는 곧 집으로 달려와 책을 읽고는 합니다. 그 이후로 나는 다른 느낌을 받았습니다. 나는 많은 금식과 기도를 드렸으며, 선교사로 나가야 한다는 개인적인 계시를 받았습니다.”

레이드는 선교 사업을 하는 동안 대단한 경험을 했는데, 그것은 그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었다. “우리는 육군 대령에서 은퇴한 이분을 만났습니다. 그는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내가 떠나기 일주일 전에 침례받았습니다. 그는 집으로 돌아가는 나를 비행장까지 태워 주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떠나기 앞서 한 동안 함께 방문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그는 나를 보며 말했습니다. ‘와 주어서 고맙소. 뉴이 장로.’ 나는 그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확실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 팔을 잡고 말했습니다. ‘내 말은 선교 사업을 나와 주어 고맙다는 것이요!’ 그것은 내 생애에서 가장 큰 경험이 되었습니다. 나는 참으로 감동되었으며, 내가 그 경험을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 것인지 생각조차 할 수 없습니다.”

레이드는 한 가지 충고를 덧붙였다. “나는 농구 선수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은 선교 사업을 나가는 데 나름대로 장애물을 갖고 있습니다. 누구나 나가지 못하게 막는 어떤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집에 남아 있는 어떤 이유도 그만한 가치를 지니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떤 댓가를 치르더라도 여러분의 인생을 정리하고 나가시기를 나는 충고 드립니다.”

시간을 내어 선교사로 나간 대학 선수들 중 어느 누구에게든 말해보면, 그들도 여러분에게 같은 말을 해 줄 것이다. 나가라! 주님께 봉사함을 후회하는 사람들은 없다.

“선교사로 나가기로 내가 결정한 것은 내 인생에서 내가 내린 가장 훌륭한 결정이었습니다.” 비와이유의 주전 선수, 마이크 스미스는 말한다. “나는 여러 해 전에 선교사로 봉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나는 다른 압력의 영향을 받기에 앞서 결정을 내렸습니다.”

드디어 압력이 가해 졌다. 마이크는 캘리포니아의 많은 고등학교에서 배출한 최우수 선수들 중의 한 사람이 되었으며 여러 큰 대학에서 그를 원했다. 마이크는 비와이유를 택했으며, 일학년 동안, 그는 31게임중 27게임의 주전 선수로 출전했다. 그러나 그의 스포츠 생활을 몇 년 뒤로 미루어 두는 것이 전혀 그에게는 문제시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특히 마이크와 같은 고향 출신으로 그의 오랜 팬인, 어떤 사람은 선교사로 봉사하기 위해 자신의 생애의 희생을 무릅써야 하는지 그 이유를 이해하지 못했다. 마이크가 선교 지역에서 말일성도가 아닌 친구에게 보낸 편지에서 그는 복음의 참됨과 물문경 및 교회의 예언자에 관한 간증을 썼다. 마이크는 또한 봉사하는 것은 희생이라기 보다는 특권으로 느낀다고 말했다. 마이크의 친구는

그의 간증에 깊은 영향을 받아 그 편지를 지역의 카톨릭 신부에게 가져 갔는데, 그 신부 또한 마이크의 농구 경력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신부는 일주일 동안 매일같이 미사에서 그 편지를 읽어 주고, 주님께 봉사하기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한 젊은이의 표본이 된다고 말했다.

“농구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어떤 일도 선교 지역에서 경험할 수 있는 일에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마이크는 말한다. “농구장에서 경험하는 느낌은 극히 제한적이고, 일시적인 것입니다. 득점 샷을 하면 팬들이 열광을 하다가도 잘못해서 공을 발밑에 떨어뜨리기도 한다면 그 위대한 느낌은 간 곳도 없이 사라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교 지역에서 받는 느낌, ‘영이 마음속에 감동을 주는 느낌은 결코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스페인 세빌 선교부에서 봉사한 비와이유 선수인 브라이언 테일러는 선교사로 봉사한다는 자신의 결정을 결코 잊거나 후회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카나리 군도에서 새로운 선교부를 여는 큰 기회를 가졌습니다. 나는 사도 바울과 같이 느꼈습니다. 우리가 길을 걸어가면, 사람들이 이렇게 묻고는 했습니다. ‘흰 셔츠에 넥타이를 맨 당신들은 무슨 일을 하는 사람들이요? 왜 당신들은 수영복을 입고 해안가에 가지 않소?’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을 설명해 주면, 그들은 감명을 받고, 때로는 한번에 150명이 우리에게 귀를 기울인적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건물의 한쪽 면에서 첫번째 시현 및 영원한 가족 등과 같은 영화를 보여 주면, 온 마을 사람들이 다 보러 나오고는 했습니다. 우리의 간증을 전하면, 그들은 눈물을 흘리고는 합니다.”

브라이언은 미소지으며 회상에 잠겨 머리를 흔들었다. “그 일과 농구를 하는 것 사이에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팀이 게임에서 이기면, 기분이 좋으나, 그 느낌은 얼마 계속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 섬에 있었던 일에 관해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의 간증을 전하는 것에 관해 말할 때, 나는 다시 기분이 좋게 느껴 집니다. 좋은 느낌을 받게 되고, 다시는 느낌이 떠나지 않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영원한 느낌입니다.”

유타 주립 대학의 마이크 존슨은 그의 피 속에 농구 기질이 흐르고 있었다. 그의 부친과 삼촌들도 모두 유타 주립대에서 선수 생활을 했으며, 마이크는 그들의 발자취를 따르기를 원했다. 그러나 선교사 부름이 먼저 왔다. 그는 그가 떠나기 전에 그와 계약 맺은 대학 농구단에서 그가 이 년 후에 돌아온 후에도 관심을 보여 줄 것인지 알아보지도 않은 채, 고등학교를 졸업하자 바로 영국 리즈 선교부를 향해 떠났다.

“나는 선교 사업을 나가기를 원했습니다.”하고 마이크가 말했다. “나는 ‘내가 하라는 명을 받은 것을 다 했으며,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다면, 내가 주님의 계명을 지켰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하고 말하기를

“선교사를 마친 후 할 수 있음을
알고 있다는 자신을 가졌습니다.
인생에서 이제까지 해본 일 중에서
가장 힘든 일을 해냈기 때문에,
어떤 일이든 할 수 있음을
알게 됩니다.”



1. 아르헨티나의 한 구도자 가족과 함께 서 있는 선교사 마이크 스미스 2. 스페인 세빌 선교부의 브라이언 테일러가 자신이 가르치고 침례준 어느 부모의 딸인 소녀가 주는 춤을 바라보고 있다. 3. 동경 성전 앞에서 일본인 회원과 함께 서 있는 스티브 슈라이너. 이 젊은이들은 모두 그들이 선교사로서 경험한 일들을 소중히 생각하게 될 것이다.

원했습니다.”

마이크는 선교 사업을 떠나는 여러 젊은이들에게 말했다. 그는 그들에게 열심히 헌신적으로 일하기를 권고했다. 그런 다음 그는 자신이 터득한 교훈을 그들에게 말해 준다. “여러분이 선교사로 나가면, 돌아온 후에는 모든 것이 여러분에게 좋게 될 것입니다.”

이들 운동 선수들은 다른 선교사들과 마찬가지로 그들이 일한 결과는 후에 다른 사람들이 거두어 들이는 경우도 있음을 배운다. 비와이유 선수인 앨런 애슬도 그러한 경험이 있었다. 영국에서 전도하고 있었을 때, 그와 그의 동반자는 그들이 문을 두드린 모든 집에 대한 기록을 해 두었다.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여러 번 시도한 어느 부인은 항상 너무 바빠 우리와 이야기를 나눌 사이가 없었으나, 나는 ‘전망이 좋은 부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선교사 책에 있는 그녀의 이름 옆에 나는 ‘전망이 좋음’이라고 썼습니다. 4개월 후에 나는 그 부인에게서 편지를 받았는데, 그녀의 이름 옆에 그런 말을 써 넣은 것을 감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지역에 새로 온 선교사들은 내가 쓴 것을 보았으며, 그녀를 찾아갔던 것이며, 그녀는 침례받았습니다. 그녀는 지금까지 대여섯 명을 교회로 인도해 왔습니다.”

유타 대학 학생인, 존 한슨은 학교가 시작되기 육 주일 전에 스위스 제네바 선교부에서 귀환했다. 몇 가지 면에서 그는 농구팀에서 잠시 쉬는 것을 즐겨 했다. “선교 사업 기간중에 다만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은 영적인 것과 봉사,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하고 존은 말했다. “선교 사업은 완전한 변화입니다. 그것은 떠나는 것보다 귀환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집에 돌아 오면, 선교사 시절에 그러했던 것처럼 주님께 가까이 머물러 있기 위해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지난해 비와이유에서 사년째 선수 생활을 하고 있는 톰

네이핑은 귀환 선교사들은 몇 가지 이점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정신적으로, 게임에 대하여 더 현명하고 그에 대하여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감정적으로도 열 여덟 살 때와는 같지 않습니다. 게임시에도 더 침착합니다.”

브리감 영 대학의 브렌트 스티븐슨이 덧붙였다. “또한 인내심을 갖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많은 게임에서 인내심을 발휘하며 제 시간에 맞는 일을 합니다. 우리가 선교 사업에서 성숙하게 된 것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교 사업을 하며 스포츠도 해나가기란 어려운 일처럼 보인다. 유타 주립 대학의 대니 콘웨이는 선교 사업은 그가 게임을 향상시키는 방법을 배우는 데 도움이 되었다는 것을 알았다. “어떤 것을 원한다면, 참으로 자신을 바치고 희생해야 합니다. 내가 잘한다면, 그것은 내가 열심히 일하고 어떤 것을 희생하기 때문입니다. 노력을 하지 않았다면 나는 결코 게임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비와이유의 브라이언 테일러도 그 말에 동의했다. “선교사를 마친 후 할 수 있음을 알고 있다는 자신을 가졌습니다. 인생에서 이제까지 해본 일 중에서 가장 힘든 일을 해냈기 때문에, 어떤 일이든 할 수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이들 젊은이들은 농구를 사랑하지만, 교회와 그들의 사명보다도 더 농구를 사랑하는 사람은 없다.

유타주의 존 저드킨스는 그들의 느낌을 이렇게 종합했다. “농구를 하면서 할 수 있는 그 어떤 것으로도 어떤 사람을 교회로 데려와 그의 생활이 완전히 변화되는 것을 보는 기쁨인 바로 그 기쁨을 느끼게 해 줄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



DOCTRINE
AND
COVENANTS

O'LE
TUSIA
MAMONA

TE BUKA
A
MOROMONA

LEER
EN
VERBODEN

VERVAALTE
A
MOROMONA

LIBRO
DE
MORMON

VERVAALTE
A
MOROMONA

BOOK
MORMON

Page 4
Pagina 4



Handwritten letters and documents are scattered on the desk. Some of the visible text includes:
"The constitution of the United States"
"the rights of the people"
"The rights of the people are secured by the constitution of the United States"
"The rights of the people are secured by the constitution of the United States"